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 속  
음식 갈구와 거부로 드러나는 더블린 여성들의  
가부장제 공모와 저항

고리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2024년 2월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 속  
음식 갈구와 거부로 드러나는 더블린 여성들의  
가부장제 공모와 저항

고 리 안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고 영 희

고리안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임 정 명 (印)

위 원 고 영 희 (印)

위 원 장 성 진 (印)

Collusion with and Resistance to Patriarchy:  
Dublin Women's Desire for and Denial of Food  
in James Joyce's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Ko Rian

(Supervised by Professor Kho Young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February 2024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서론 .....	1
I. 음식 갈구: 가부장제 공모를 통한 사회경제적 허기 채우기 .....	15
1.1 「이블린」: 이블린의 생존 음식을 위한 대체 가부장 찾기 .....	16
1.2 「하숙집」: 무니 모녀의 음식 권력을 이용한 대체 가부장 들이기 .....	27
1.3. 「진흙」: 마리아의 플럼 케이크에 감춰진 가부장 종속 욕망 .....	35
II. 음식 거부: 남성 화자의 왜곡과 여성의 젠더 역할 수행 거부 .....	48
2.1 「죽은 사람들」: 미스 아이버스의 젠더 역할 수행 거부 .....	52
2.2 『젊은 예술가의 초상』: 단테의 젠더 역할 수행 전복 .....	62
결론 .....	76
인용문헌 .....	79
영문초록 .....	83

#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 속 음식 갈구와 거부로 드러나는 더블린 여성들의 가부장제 공모와 저항

## I. 서론

음식은 인류 문명의 가파른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의 생존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물질이다. 인간 생존과 음식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는 음식이 삶을 통제하는 매개체로써 기능할 수 있으며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음식이 인간의 생존과 사회문화적 영향 측면에서 인간 행동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해 보았을 때,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sup>1)</sup>의 작품에 뚜렷이 보이는 음식의 재현들은 음식과 인간의 삶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비추어 다시 해석하기에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특히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sup>2)</sup>의 여성 인물들은 음식에 대해 갈구하거나 거부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조이스는 단순히 여성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음식을 재현하며, 특히 남성 권위를 가지는 가부장으로부터 음식을 제공

---

1) 1882. 2. 2. - 1941. 1. 13.

2) 이하 『초상』으로 표기함.

받는 상황을 묘사한다. 나아가 조이스는 음식 갈구를 마비(paralysis)<sup>3)</sup> 증상 중 하나로 보았으며 가부장적, 사회문화적 구조 안에서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심리적 집착과 동요, 그리고 저항을 포착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조이스가 음식을 더블린 여성들의 정신적 종속 및 가부장제 마비의 매개체로 보았음에 주목하고, 여성들의 음식 거부와 음식 갈구의 행동 간에 보이는 차이점을 통해 가부장제와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밝힐 것이다. 물론 음식 갈구와 거부 행동은 여성들만의 전유 행동은 아니며 아일랜드의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여성들처럼 남성들의 음식 갈구와 거부 행동도 분명 공존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가부장제의 지배구조 안에서 드러나는 더블린 여성들의 심리와 음식 사이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더블린 여성들의 음식 태도가 주된 연구 영역임을 밝힌다.

지금까지 조이스의 작품 속 인물들과 음식 사이의 관련성 연구는 미리암 오케인 마라(Miriam O'Kane Mara)와 고영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마라는 「죽은 사람들」(“The Dead”)과 『초상』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예로 들며 여성들이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음식과 정치 및 젠더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을 이끌어낸다고 언급한다(94). 그리고 음식 거부는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로 아일랜드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며, 분열된 정체성을 재건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94). 고영희는 아일랜드의 대기근 후속 세대들의 “사후 기억”(“postmemory”, 4)에 주목하면서 대기근의 트라우마와 이를 이용한 식민 권력의 생명 정치(“biopolitics”, 7)를 아일랜드인의 마비의 원인으로 보았다. 고영희는 더블린 사람들이 도덕적 양심보다 음식을 선택하는 관행은 기근 동안 이루어진 영국의 생명 정치 통제와 규제에 대한 아일랜드의 종속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48). 조이스의 작품과 음식 관련성이 이같이 논의되었으나, 가부장제와 음식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여성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 재현에서 젠더 불균형에 대한 조이스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연구에 반영

3) ‘마비’(paralysis)라는 용어는 원래 육체의 마비를 뜻하는 의학용어이지만, 조이스가 아일랜드의 국가적 식민지 상황과 민족 정체성, 사회 제도의 불평등 등에서 비롯된 의식의 마비를 함축적으로 일컬었던 말로써, 그는 아일랜드 민족의 마비된 의식을 해방시킬 목적으로 글을 썼다.

되지 않은 이유는 조이스의 작품 속 화자가 사회 구조와 같은 편향적 관점에서 여성 인물들을 오도하며 그들의 마비 의식과 저항 행동을 가렸기 때문이다. 화자는 가부장적 시선에서 남성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음식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중요한 만찬을 망치는 물지각한 여성으로 만든다. 이 같은 화자의 시선은 조이스의 실제 여성관과 혼동되며 그의 페미니즘을 비판과 옹호로 나뉘게 하는데 일조한다.

엘렌 식수(Helene Cixous),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뤼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등의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조이스를 남성 중심적 문학 전통에 비판을 가한 작가로 본다(황보귀남 1). 트레이시 슈바르츠(Tracey Teets Schwarze)에 따르면 이러한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에 의해 조이스가 단순히 전형적인 인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묘사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평한다(160). 또한 박윤기는 양분된 여성상을 두고 조이스를 여성 폄하론자로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작가와 작품 속 주인공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6). 김소연도 조이스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성의 삶을 관찰하고 고찰하며 여성적 글쓰기를 한 작가라고 평하면서, 그의 작품 곳곳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여성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한 장면이 등장한다고 한다(6). 이런 옹호와는 반대로 샌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잔 구버(Susan Guber) 등의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조이스가 여성을 폄하하고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주도적으로 이끈다(박윤기 1). 유소희는 스티븐의 첫사랑 엠마를 비롯한 『초상』의 여성들은 아일랜드 사회의 부패와 마비를 가져온 장본인들이며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존재들로 본다(61). 이주련도 『초상』에서 한 여성 인물에게 동시에 보여지는 성녀와 창녀라는 양면적 특성은 조이스가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이분법을 부정한 증거라기보다는 그가 스티븐이라는 남성 주체를 통해 여성을 타자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54).

이처럼 조이스가 반 페미니스트로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사회 시선 그 대로를 내재화한 남성 중심적 화자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는 “오랜 비평적 전통이 페미니즘에 대한 조이스의 적개심을 당연시해 왔다고 지적하며(Murfin 183), 「죽은 사람들」에서 “서술과 가부장제의 결탁(the narration's collusion with patriarchy)”이 화자의 목소리를 가

부장적이고 여성 혐오적으로 만들지만, 조이스의 서술은 문명화되고, 매력적인 남성 편향적 화자와 우아하지 않고, 저속하고, 불분명한 여성 등장인물 간의 모순과 격차를 통해 독자들이 질문하고 의의를 제기하도록 이끌어낸다고 언급한다(Murfin 184-185). 화자는 의도적으로 남성을 중요한 인물로 만들면서 여성 인물들을 주목 받지 못하게 주도하고 여성 혐오적 상황을 보여준다(Murfin 184). 우리는 이러한 화자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불균형적 처우의 대조를 통해 가부장적 상황을 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이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음식 갈구와 음식 거부의 태도가 함축하는 가부장제와의 관련성 연구와 화자의 시선에서 왜곡되는 젠더 불균형의 불편한 사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더블린 여성들의 음식에 대한 반응이 양극으로 나뉘는 데는 여러 원인들이 중첩되어 있다. 먼저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아일랜드의 종교적, 사회적 관습 안에서의 단식 전통에서 이어진 행동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고대 아일랜드 민법 센추스 모르(Senchus Mor)에는 트로스커드(troscud)라는 단식투쟁의 고대 선례가 있었는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단식을 하거나 부당한 희생자가 그를 해친 사람을 상대로 단식을 할 수 있는 법이었다(Ellmann 12). 후에 이 전통은 아일랜드 가톨릭에 전해졌고,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Saint Patrick)이 신에 대항하여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단식했다는 설이 있다. 이는 종교적 금욕이 적에 대해 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단식하는 시민적 관습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Ellmann 12).

과거 아일랜드의 사회 관습과 종교적 전통에서 단식 관행이 이어져 왔다면, 1845년 시작된 대기근(1845-1849)<sup>4)</sup>은 정신적 트라우마로써 여성들의 음식 갈구와 거부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영국의 적극적인 구제 노력이 있었다면 그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대기근 참사로 인한 폐

---

4) 1845년 초 벨기에에서 감자 잎마름병(a new form of potato blight)이 발생했고, 감자 잎마름병은 유럽 다른 지역으로 번져 그해 늦여름 아일랜드까지 퍼졌다.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 아일랜드의 고품질 옥수수나 가축은 수출용으로 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감자를 주식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가축의 먹이로도 쓰였으므로 아일랜드인들에게 감자 농사의 실패는 심각한 것이었다. 그나마 첫 해에는 영국이 구호 조치로써 식량 공급을 늘리고 미국에서 저급 인도 옥수수를 수입하여 식량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으로 구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 후로 영국 정부의 미비한 대처와 냉담한 방관적 태도로 구호 가능했던 아일랜드 대기근의 참사를 더욱 악화시켰다(Kinealy 11-13).

해는 6년 동안 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만 명이 추가로 이민을 갔으며, 이 사건이 아일랜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량화하거나 명확히 하기 어려울 정도로 (Kinealy 7) 처참했다. 그러므로 기근 직후 20세기 초 아일랜드에서 음식이 갖는 의미는 특히나 중요했음은 당연하며, 아일랜드인들에게 음식이란 생과사를 갈라놓았던 트라우마로 작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모두가 쉬쉬하는 분위기였으나 대기근 동안 행해졌다고 전해지는 식인풍습과 영국 제국의 착취에 버금갔다는 아일랜드 자국민들끼리의 착취 또한 후대에게 기근의 트라우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오랫동안 이런 충격적인 민족사는 은폐되는 분위기였다. 이는 예술이라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히스클리프와 대기근』(*Heathcliff and the Great Hunger*)에서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아일랜드 문화에서 작용하는 “압박 또는 회피”가 기근이 예술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것을 막았다고 언급했고 (Goss 80 재인용), 보니 루스(Bonnie Ross)는 조이스 또한 『율리시스』(*Ulysses*)에서 아일랜드 문화에 대한 영국의 소비를 비판하기 위해 교묘하게 은폐하는 방식으로 기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한다(Cusack 3). 대기근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 조이스도 대기근의 직접 언급 대신 아일랜드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를 통해 민족의 기근 트라우마를 드러낸 것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영희 2). 조이스의 소설에 드러나는 음식 거부와 갈구, 둘 다 음식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써 대기근의 트라우마 관점에서 볼 때, 살아남은 것에 대한 거부이자 살고자 하는 갈구 행동일 수 있다. 기근의 전례 없는 비참한 예로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Roos 101) 상황은 비극적이고 처참했다. 대기근의 배고픔과 아사의 기억은 음식 갈구 행동으로, 식인풍습의 트라우마는 음식 거부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고영희는 특히 조이스의 등장인물들이 대기근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아일랜드의 기근 이후 세대들인 것에 주목한다. 그는 기근 이후 세대들이 보이는 도덕적 마비가 기근의 트라우마와 음식을 이용해 생명 권력을 펼친 영국의 식민정치 때문이라고 보고 음식과 권력의 상호 작용을 그대로 내재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4).

음식 거부의 계보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단식 투쟁으로 이어진다. 단식 투쟁은 1916년 부활절 봉기 이후 민족주의적 대의를 지배하며 행해졌던 저항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단식 투쟁은 그 당시 페미니즘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에도 불구하고 여성 참정권 운동가의 단식 투쟁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Ellmann 11).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단식 투쟁한 대표적인 인물은 테런스 맥스위니(Terence James MacSwiney, 1879년~1920)이다. 그는 브릭스턴 교도소에서 단식 74일 만에 아사했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 단식 투쟁의 계보는 IRA(Irish Republican Army)가 이어간다. 모드 엘먼(Maud Ellmann)은 아일랜드 단식 투쟁이나 참정권 운동이나 간디의 경우, 개인이 종교, 젠더, 국가 등 집단의 이름으로 굶주렸고, 그들의 순교는 각자의 집단에 정체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한다(6). 더블린 여성들 또한 여성 평등과 자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아일랜드 독립운동이 맞물리는 과도기적 시대 상황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단식 투쟁 계보를 잇는 저항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조이스 시대에 가부장제와 맞선 대표적인 투쟁 중 하나는 유럽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었고, 참정권 쟁취를 위한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저항 방법 중 하나는 단식투쟁이었다. 1860년대 영국에서는 여성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요구가 등장한다. 부르주아 계급 내에서 당대의 젊은 여성들에 의해 처음 제기된 남성들의 여성 억압에 대한 반대는 그 시대의 진부한 여성성에 대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한 결혼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Wainwright 651).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19세기 후반부터 조직이 결성되고 활성화되었다. 그중에서 1903년에 에밀린 판크허스트(Emmeline Pankhurst 1858~1928)에 의해 결성된 전투적 조직 WSPU(Women's Social and Political Union)는 1912년 이후 유리창 깨기부터 방화 및 기타 방법을 통한 사유 및 공공 재산 파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폭력적인 형태의 항의를 한다. 1909년 감옥에서 첫 번째 페미니스트 단식 투쟁 이후 대의명분을 위한 참정권 운동가들의 희생은 점점 커진다(Chapman and Green 28). 단식활동가들은 강제로 사지를 압박당한 채 쇠자갈을 물고 튜브를 통해 음식을 받아먹어야만 했다(Chapman and Green 29, 46). 아일랜드의 여성 참정권 운동도 그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습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많은 저항과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아일랜드 여성 참정권은 1918년 영국에서 한정적으로 30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 여성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이 통과된 이후에 일부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여성들은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계속 운동을 이어갔다. 1928년에 아일랜드 자치법이

통과된 후에야 아일랜드에서의 여성 참정권은 완전히 실현되었다. 이러한 여성 권리 찾기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영향을 받은 더블린 여성들도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점차 외부로 표출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흐름은 조이스의 소설에서도 가부장이 제공하는 음식 거부로 재현된다.

이처럼 더블린 여성들의 음식 갈구와 거부는 대기근의 트라우마, 영국의 식민 통치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관습의 계보 등 여러 지류들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지류들의 영향들과 더불어 이 여성들의 행동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20세기 초 아일랜드의 가부장적인 사회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조이스 소설의 배경인 20세기 초에 아일랜드의 남성과 여성 모두 영국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특히 아일랜드 남성들은 오랜 영국의 식민 지배로 자신들의 억눌린 남성성에 대한 분노가 팽배한 시기였다. 조이스의 소설에서도 가정폭력이 자주 그려지는데 남성들은 그들의 억압된 분노를 자신보다 신체적으로나 법적으로 약한 아내에게 표출하는 일이 빈번했다(Schwarze 121). 아일랜드 남성들이 제국 주의, 종교, 대기근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다면 아일랜드 여성들은 그에 더해 그들의 가부장에게까지 억압받았다. 이렇게 더블린의 여성들은 아일랜드의 지배구조 가장 아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억압에 있어 가장 직접적 지배 권력은 가부장이었다. 더욱이 남성들은 경제적 주체로 설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것마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생존 불안에 더 취약한 여성들의 음식 갈구는 더 컸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 찾기에 목소리를 높여가던 20세기 초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조이스 초기 소설 속 여성들의 음식 거부의 의미는 젠더 불균형의 인식 확대에 따른 가부장제 저항임을 알 수 있다.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한 단식투쟁은 오랜 문화적 이념들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며 그 시대가 갖는 여성들의 여러 고통들에서 기인한 징후가 정치적 의미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식 거부와 단식, 그리고 거식증은 다른 것이지만 본 논문은 저항의 관점에서 음식을 거부한다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논지를 확대했음을 밝힌다. 음식 거부는 일반적인 거부 상황이며, 단식은 확고한 투쟁 의지 관철을 위한 것이고, 거식증은 병리적인 음식 거부를 의미한다. 수잔 보르도(Susan Bordo)는 권력 관계가 특정 집단에 의한 지배나 남성의 여성 지배를 수반한다고 해서 지배자가 그 상황을 완전히 조정하는 것도 아니며, 가끔은 피지배자 자신들이 상황을

진전시키거나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억압 상태에서의 이러한 합작(collaboration)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거식증이라고 강조한다(180-181). 여성들이 저항의 형태로써 단식과 음식 거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공통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식은 생존권을 걸고 여성이 자기 몸의 지배권과 선택권을 남성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주체적인 선택이 가능한 저항 수단이었다. 보르도는 거식증이 그 특징적 구조의 극단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다면적이고 이질적인 고통들이 여러 겹으로 얽혀있는 징후라고(178) 정의 내리며, 거식증이 정신과 몸이라는 이원론적 이중성, 몸의 통제, 그리고 젠더 권력과 관련된 오랜 문화적 이념들에서 기인하는 문화적으로 과도하게 결정된 심리적 장애로 보았다. 리사 시웰(Lisa Sewell)도 거식증은 자신을 굶기고 결과적으로 2차 성징을 잃음으로써 그들의 여성성을 거부하고 문화적 규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가부장적 문화에서 모든 여성이 대리권 획득 시 직면하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50). 보르도와 시웰은 거식증의 발현을 공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젠더 권력에 원인을 두고 있다. 조이스의 소설 속 여성들의 음식 거부 행동은 증상으로서의 병의 발현까지는 아니지만, 그들 또한 음식 거부로 가부장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젠더 수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더블린 여성들에게 음식과 가부장제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더블린 사람들』 속 여성들의 음식 갈구는 가부장 부재 상황에서 느끼는 생존의 불안이 불러 온 사회경제적 허기이며, 부재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가부장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낀 여성들의 심리적 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 아일랜드의 여성들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의 젠더 역할이었다. 여성들은 주로 가정생활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결혼과 육아가 그들의 주요 역할이었다. 그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소녀들을 위한 바느질 작업 매뉴얼을 포함하는 여학교 전용 책으로 교육을 했다. 이 책들은 젊은 여성의 역할을 “주부”로 이상화했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으로서의 남편”에게 봉사하는 역할로 정의한다(Wainwright 667). 많은 여성들이 젊은 나이에 결혼하여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이는 그들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의미했다. 아일랜드

에서 이 시기 여성들에게 대학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Wainwright 660) 대부분의 교육 기회는 남성들에게 제공되었고, 그나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도 가톨릭 교회가 여성 고용에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Wainwright 654) 여성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은 혜택받은 극소수의 여성들에게나 가능했다. 수녀원은 젠더 역할에 대한 정의 측면에서 양가적인 역할을 했다. 수녀원 학교는 여성에게 교사, 교육자, 행정가로서 가정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순진하며, 차분하고, 숙녀다운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을 위한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의 가치를 여성에게 부여했다(Innes 121). 1900년 이후 점점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회계 및 공무원과 같은 직업에서는 제외되었다(Innes 119). 따라서 경제적 활동이나 공적인 역할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여성들은 직업적인 발전과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 기회는 매우 적어서 대다수는 농촌 지역에서 농업 노동자로 일했고 도시 지역에서도 여성들은 서비스 업종이나 식품 가공, 섬유공장 등의 비교적 저임금 노동자로 일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 및 정치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 법적 권리도 가질 수 없었다. 아일랜드는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해 통치되었고(Innes 117) 여성은 정치 권력에서 배제되었다(Innes 116). 1918년에 영국의회에서 여성 참정권을 위한 첫 승리는 레이디스 랜드 리그(Ladies' Land League)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Wainwright 675). 이때 비로소 매우 한정적으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지만, 이는 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적 제한은 아일랜드의 사회 구조와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여성 투표권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가족에 대한 거부이자 사회 붕괴의 잠재적 원인으로 여겨졌다(Wainwright 655). 이와 더불어 결혼한 여성들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도 제한적이었다. 여성들은 결혼 전후에도 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제한되어,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신체 소유권은 합의에서 달리 선언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양도되었고,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남편 소유가 되었다. 1870년에 시작된 기혼 여성 재산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법은 점차 여성을 남편으로부터 독립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 별개의 개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아내의 재산은 유기, 이혼, 사망의 경우에도 남편이 처분할 수 있었다(Schwarze 121). 여성들의 불평등한 법적 권리와 재산에 대한 제한은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였으며, 한 인간으로서 독립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가부장제는 여성의 독립을 막아왔고 여성을 종속의 상태로 만들어 항상 보호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높여왔다. 가장 없이는 보호받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허기를 초래하며, 이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음식이 그들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드러난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거의 독립이 불가능했던 그 시대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권력을 가부장에게 주고, 가부장의 보호 대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키워지고 강요받은 여성들은 더욱 수동적인 “미약한”(“helpless”, D 32) 존재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

음식이 실질적 생존을 목표로 한다면 젠더는 “문화적 생존”(“cultural survival”, Butler 522)을 목표로 “수행”(“performance”, Butler 522)한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현하게 되는 양식화된 수행의 성취물이지만 결코 이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젠더는 몸에 수동적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며, 또한 자연, 언어, 상징, 또는 압도적인 가부장제의 역사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젠더는 불가피하게, 매일 끊임없이, 불안과 즐거움으로, 제약 아래 씌워지는 것이지만, 이 지속적인 행위가 자연적이거나 언어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오해된다면, 문화적 영역을 몸으로 확장시키려는 전복적인 수행을 통해 권력은 양도된다.

Gender is not passively scripted on the body, and neither is it determined by nature, language, the symbolic, or the overwhelming history of patriarchy. Gender is what is put on, invariably, under constraint, daily and incessantly, with anxiety and pleasure, but if this continuous act is mistaken for a natural or linguistic given, power is relinquished to expand the cultural field bodily through subversive performances of various kinds (531).

버틀러는 젠더 정체성은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복적인 수행을 통해 변형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기준은 모두 “문화적 허구”(“cultural fictions”, Butler 522)가 된다. 문화가 처음부터 “남성은 순종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 덧씌운다면 순종은 남성의 젠더 역할이 되었을 것이다.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아닌 전략에 따라 젠더를 가르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의 작품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음식 거부와 갈구는 버틀러의 젠더 이론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버틀러는 젠더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행이라고 주장한다(522). 이러한 버틀러의 이론에 따라 더블린 여성들의 음식에 대한 거부와 갈구 행동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젠더 기대와 상호 작용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음식 갈구와 거부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한 젠더 순응과 저항의 표현이다. 버틀러가 강조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음식에 대한 행동을 젠더 수행으로 이해한다면, 음식을 통한 여성들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젠더 기대를 수행하면서도 그 제약을 극복하려는 저항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젠더 정체성은 유동적인 것으로써 전복의 가능성을 지닌다.

본 논문은 특정 상황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여성들과 음식을 갈구하는 여성들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허기에 노출된 여성들의 음식 갈구가 곧 가부장제에 대한 마비 행동일 수 있으며, 반대로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가부장제의 젠더 억압에 대한 저항임을 밝히고, 여성들의 음식 거부를 의미 없는 아집처럼 보이게 하는 정교한 화자의 남성 편향성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려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이스가 문학에서의 젠더 불균형의 재생산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작품을 통해 젠더 불균형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덧씌워진 젠더 역할에 대한 거부이며 가부장제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한 거부이다. 음식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최소한 남성 권위적인 가부장제에 마비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르도에 따르면 여성의 욕망들은 여성 식욕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자주 문화적으로 재현되어왔고(19),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은 음식의 욕망을 여성의 성적 욕망과 동일시하는 사회 시선에 따라 음식을 적게 먹는 여성을 이상화하였다(147-148). 그 시대 여성들은 젠더 역할에 따라 남성 앞에서 순종적으로 음식을 받고 적게 먹는 것을 수행하였지만, 가부장제

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은 역으로 음식 거부를 통해 젠더 역할의 전복을 수행했다. 반면 음식을 갈구하는 여성들은 사회가 바라는 젠더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경제적 허기를 채워 줄 가부장 찾기에 나선다.

이에 본 논문은 제 1장과 제 2장으로 나뉘어, 1장에서는 음식 갈구를 대표하는 「이블린」(“Eveline”)의 이블린(Eveline),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의 무니모녀(Mrs. Mooney and Polly Mooney), 「진흙」(“Clay”)의 마리아(Maria) 등 네 명의 여성들을 분석하고, 2장에서는 「죽은 사람들」(“The Dead”)에서 음식을 갈구하는 모르칸 자매(Misses. Morkan)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음식을 거부하는 미스 아이버스(Miss. Ivors)와 음식 거부를 시작으로 남성들과 팽팽히 맞서는 『초상』의 단테(Dante Riordan) 부인을 분석할 것이다.

제 1장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사회경제적 불안감에서 오는 심리적 허기를 음식 갈구로 채우려는 더블린 여성들을 검토한다. 대부분의 더블린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젠더 억압에 저항이 아니라 순종한다. 본 논문에서는 순종의 대가로 제공되는 음식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허기를 채워줌으로써 깨뜨릴 수 없는 가부장의 권력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여성들에게 가부장제는 깰 수도 없고, 깨져서도 안 되는 절대적 세상이며, 남편 혹은 아버지의 부재가 그들에게는 결정적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음식을 갈구하는 더블린 여성들에게 가부장의 자리는 공석이거나 있다고 해도 너무 부실해서, 이들은 가부장의 대체자를 찾기 바쁘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 독립이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남편 혹은 가부장에 의존할 수 없음에서 오는 심리적 허기는 언제라도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 그 자체였다.

「이블린」에서는 이블린과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가부장적 관계에서, 음식의 작동원리가 이블린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하숙집」에서는 무니 부인과 그녀의 딸 폴리 그리고 그녀의 남편감 도란(Doran), 이 세 사람 사이에 보이는 음식 갈구와 가부장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하숙집」의 무니 부인은 난봉꾼 남편과 이혼하고 하숙집을 운영하는 생활력 강한 여성으로서, 음식으로 하숙집을 쥐락펴락하고, 그녀의 딸 폴리(Polly) 역시 따뜻한 저녁 식사 제공을 수단으로 남편감을 얻는데 성공한다. 이 이야기에서도 그녀들은 무능력한 아버지라는 가부장의 부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가부장의 자

리에 앓을 대체자를 음식을 통해 얻으려 한다. 무니 부인과 폴리는 자신들의 음식 갈구라는 1차적 욕망을 타지 생활 중인 도란에게 비추어 그에 대한 권력을 획득한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자, 음식 배분의 역할을 맡은 자가 가부장이라면, 가부장 대체자에 대한 지배력을 얻기 위해 그 역할을 무니 부인과 폴리가 역으로 수행하고, 도란은 그녀들의 음식을 받고 그 집안의 가부장 대체자가 된다. 「진흙」에서는 가부장 없이 독립하여 살아가는 마리아의 숨겨진 결혼 욕망과 끊임없는 가부장 대체 심리가 음식으로써 표출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진흙」에서 주인공 마리아는 결혼을 욕망하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며, 가족이 없는 노처녀로 근근이 살아간다. 마리아는 가족처럼 여기는 조 부부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가부장 부재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들에게 줄 선물로 플럼 케이크(plumcake)를 신중히 고르고 구매한다.

제 2장은 1장에서의 음식 갈구와는 반대로 중요한 만찬 자리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화자의 편향적인 남성 중심적 시선이 감추고 있는 그들의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분석한다. 만찬 식탁은 가부장제의 권력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와 『초상』의 단테는 남성들과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 대립 끝에 만찬 음식을 거부하며 젠더 역할 전복을 시도한다.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는 남성들과 날 선 설전 끝에 크리스마스 만찬 음식을 거부하고 중간에 만찬 자리를 떠난다. 이들의 음식 거부는 가부장적 젠더 역할의 불균형에 저항하는 젠더 역할 수행 거부와 다름없다. 이에 대해 마라는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가 과도한 반응으로 대처하며, 식사를 거부함으로써 한정된 여성적 역할을 피하고 공적인 담론과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일랜드의 정체성에 다시 참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다(97). 두 여성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편성하고 있다.

젠더 억압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순한 신체적 거부이거나 아집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다. 『음식과 문화』(*Food and Culture*)의 서문에서 쿠니한(Carole Counihan)과 에스테릭(Penny Van Esterik)은 수백 년 동안 여성과 음식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끊임없는 단식이었으며, 그들이 쉽 없이 단식함으로써 남편의 경제적 통제와 사제들의 종교적 권위를 전복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4). 이렇게 여성들의 음식 거부가 지속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 반기를 들어왔던 것처럼, 조이스의 여성

인물들의 음식 거부도 곧 저항이었다.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가 음식 거부라는 저항을 택할 수 있었던 뒷받침은 그들의 독립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엘만은 음식을 가지고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은 계급적 우월성의 표시이자 필요 욕구에 대한 독립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7). 엘만의 언급처럼 이러한 독립성은 사회경제적 안정감에서 비롯된다.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가부장의 부재 불안과 경제적 위기감에서 야기된 물질적 불충족이 음식 갈구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고, 이미 독립한 지식인 여성들은 물질적인 욕구가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너무나 뿌리 깊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독립과 가부장으로부터 깨어있는 의식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이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조이스 소설 속 여성들은 가부장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주체적 여성과 음식을 거부할 수 없는 마비된 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더블린 여성들의 음식 거부와 음식 갈구라는 두 갈래의 양극적인 태도는 가부장제와 공모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의 반영으로써, 결국 시대적 고통이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혹은 과도한 욕망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I. 음식 갈구: 사회경제적 허기 채우기

『더블린 사람들』에서 음식은 그들의 생활 속에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고 거창하게 전시되기도 한다. 자신의 소설이 마비된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비춰 볼 수 있는 거울이기를 바랬던<sup>5)</sup> 조이스는 사회경제적 불안에 대한 심리적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는 마비된 인물들을 『더블린 사람들』 곳곳에 등장시킨다. 그 당시 아일랜드는 대기근의 충격과 그 여파로부터 겨우 회복되어가는 시점이었고 영국의 식민 지배로 여전히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갇혀있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와 빈곤의 상황에 놓인 더블린 사람들에게 음식은 매 순간 풍부함이 아닌 결핍의 요소로써, 갈구해도 채워지기 어려운 불안정한 삶의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음식의 중요성은 또한 음식이라는 물질이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머니」(“A Mother”)의 키어니 부인(Mrs. Kearney)은 화려한 인생을 제공할 구혼자를 기다리는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자 설탕이 입혀진 터키 젤리를 잔뜩 먹으며(D 116) 자신을 위로한다. 「죽은 자들」의 모르칸 자매들은 값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통해 스스로를 과시하려 한다. 이들은 왜 음식에 좌지우지 끌려다니는 것일까? 이것은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사회 구조인 가부장제가 만연한 아일랜드에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거의 제한적이였다. 더군다나 당시 더블린 사람들은 오랜 식민지 착취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훨씬 더 가혹했다. 그 이유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기회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여성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음악이나 교육 계열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가부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가부장이 있더라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을 때의 사회경제적 취약함은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었고, 늘 가부장의 부재 불안과 그로 인한 위기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채우려 해도 채울 수

5)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이 꼭 출판되어야하는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출판업자였던 Grant Richards에 보냈던 편지 내용 중 일부를 인용.

없는 사회경제적 허기에서 음식에 대한 여성들의 갈구가 시작된다. 생존을 위한 그들의 불안감이 키어니 부인이나 모르칸 자매들의 경우처럼 음식 갈구 같은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음식을 갈구하는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가난했고, 직업이 있더라도 저임금 노동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언제나 최하층 빈민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위치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에게 온전한 사회경제적 독립이란 남성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 여성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은 사회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집안의 가부장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그 권력 아래에 종속되기를 갈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겉으로 매우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숙집」의 무니 부인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든든한 가정의 모습을 사위에게서 찾으려 한다.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보여주는 여성 인물들의 음식 갈구는 이들의 무의식적 가부장제 종속을 보여준다. 「이블린」의 이블린은 가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억압적이기까지 한 아버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진흙」의 마리아는 결혼 적령기가 지나도록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 소외와 배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원한다. 또한 「하숙집」의 무니 부인과 딸 폴리는 생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난봉꾼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 올 가부장 대체자를 눈이 빠지게 찾고, 「죽은 사람들」의 모르칸 자매는 조카 가브리엘을 가부장 대체자로 채택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 이들이 보이는 공통점은 가부장에 대한 갈구이며, 이 욕망은 음식에 대한 갈구로 표출된다. 이들에게 가부장은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오고 음식을 나눠주는 권한을 갖는 사회적, 경제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음식만큼이나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 1.1 「이블린」: 이블린의 생존 음식을 위한 대체 가부장 찾기

「이블린」에서 이블린의 사회경제적 허기는 생존을 향한 음식 갈구와 확보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가부장제 종속에 대한 인식의 마비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

는 가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정서적으로 확대하는 아버지 대신 그를 대체할 만한 프랭크(Frank)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블린의 심리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블린」에 대한 비평은 이블린의 사회적, 종교적 제도에 대한 마비 의식과 그에 따른 수동적 행동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볼프강 위히트(Wolfgang Wicht)는 『더블린 사람들』<sup>6)</sup>에서 이블린이 가장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인물이며,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아버지, 어머니, 교회, 사회 규범 등에 의해 암호화된 “의무”의 기질이 그녀를 이끈다고 평한다(122). 유진 오브라이언(Eugene O'Brien)은 『더블린 사람들』의 여성 주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가 없었음을 지적하며(203) 라캉의 욕망이론을 통해 이블린의 타자적 욕망을 설명한다. 그는 이블린의 주체성이 그녀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인 “타자”(others)의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거울 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보이며, 이는 그녀의 오빠, 아버지, 프랭크 등 남성의 시선을 통해 위치한다고 분석한다(O'Brien 205). 박윤기 또한 이블린이 떠날 수밖에 없는 가정에 대한 책무와 종교적인 순종 모두는 그녀의 수동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24). 황희주는 의식은 있으나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블린의 나약함은 식민지 여성이 피지배자의 피지배자로서 무의식적으로 황폐한 사회에 길들여진 약자임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41). 황보귀남도 「이블린」이 십대 후반의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부장제의 인습을 폭로하고 있다고 언급한다(18). 이처럼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인물인 이블린은 특히 가부장제와 종교의 인습으로 마비되어 자신의 욕망조차 실현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비평이 이블린을 수동적 인물로만 평가했다면, 새로운 생존의 관점에서 이블린이 아버지와 프랭크 사이에서 가부장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음식을 기준으로 그녀 나름의 필사적인 생존 전략으로 결국 떠나지 못했음을 논해 보고자 한다. 물론 여러 비평의 결론들처럼 그녀는 마비된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과 아버지의 폭력 위협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블린의 수동성 안에 숨은 사회경제적 허기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한 음식 갈구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논의된 바 없다. 본 논문은 이블린의 음식 갈구가 그녀가 떠나지 못

6) 본 논문의 『더블린 사람들』의 해석은 열린책들, 2013년 10월 20일 출판. 역자 이강훈 『더블린 사람들』을 참고하여 인용함.

한 결정적 이유라고 주장한다. 이블린의 기억 한 쪽을 차지하는 행복했던 음식을 근거로, 본 논문은 이블린의 음식 갈구가 생존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가부장제 종속에 대한 수동적 태도와 마비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블린은 갓 열 아홉 살을 넘긴 여자 주인공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경제적 독립은 꿈꿀 수조차 없는 취약한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매니저의 갓은 잔소리에 시달리며 가게 점원으로 일하는 데서 오는 사회생활의 회의감과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 그리고 가정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이미 힘에 부치다. 그녀와 그녀의 형제들은 가장으로서도, 자애로운 아버지로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희생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이블린은 부모 대신 어린 동생들을 맡아 양육하며(D 29), 더욱 힘겨운 처지에 놓인다.

이블린이 이러한 상황에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음을 소설의 초반부터 명확히 드러난다. 한창 젊음으로 열정이 피어오를 나이임에도 이블린은 첫 문단에서 이미 “지쳐있었다”(D 26)고 묘사된다. 화자가 무심한 듯 묘사한 “먼지 쌓인 크레톤 천 냄새”(“the odour of dusty cretonne”, D 26)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나아질 희망 없이 정체된 그녀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패트릭 패린더(Patrick Parrinder)는 조이스가 “분위기”(“atmosphere”)라는 단어 대신 “냄새”(“odour”)라는 단어를 선호했음을 지적한다(251). 「이블린」에서 “냄새”라는 단어는 전략적으로 첫 단락에 배치되었고, “먼지 쌓인 크레톤 천 냄새”가 뒤에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조이스가 이 구절을 통해 이블린이 생기 없고 음침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명백하게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이다(251). 이블린이 “수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를 청소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쌓여가기만 하는 먼지”(D 29)는 끝없이 지속되는 그녀의 집안일, 더 나아가 의무를 의미한다.

책임과 의무만이 지속되는 그녀의 삶 속에서 이블린의 아버지는 그녀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만 한다.

게다가 돈 문제로 토요일 밤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말다툼은 그녀를 말 할 수 없이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항상 급료 전부를 - 7실링 - 드렸고 해리도 언제나 할 수 있는 만큼은 보내주었지만, 문제는 아버지에게서 돈을 타내

는데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고 생각이 없다면 서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길가에 뿌리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토요일 밤이면 평소보다 유난히 더 심하게 굴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을 주면서 일요일 저녁 때 먹을 것을 사 올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제야 그녀는 부리나케 시장으로 달려가 검은색 가죽 지갑을 손에 꼭 쥐 채 인파를 헤치고 다니며 장을 보았고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식료품을 잔뜩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집안을 돌보고 자신에게 남겨진 두 어린 동생을 때맞춰 먹이고 학교에 보내느라 쉴 틈이 없었다.

Besides, the invariable squabble for money on Saturday nights had begun to weary her unspeakably. She always gave her entire wages—seven shillings—and Harry always sent up what he could but the trouble was to get any money from her father. He said she used to squander the money, that she had no head, that he wasn't going to give her his hard earned money to throw about the streets and much more for he was usually fairly bad of a Saturday night. In the end he would give her the money and ask her had she any intention of buying Sunday's dinner. Then she had to rush out as quickly as she could and do her marketing, holding her black leather purse tightly in her hand as she elbowed her way through the crowds and returning home late under her load of provisions. She had hard work to keep the house together and to see that the two young children who had been left to her charge went to school regularly and got their meals regularly (*D* 29).

이블린이 점원으로 일하며 버는 돈은 고작 7실링 정도였고 전부를 가게에 보태고 있었다.<sup>7)</sup> 게다가 남동생 해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보내주었지만” 아버지에게서는 온갖 잔소리를 들어야만 겨우 음식을 살 돈을 타낼 수 있었다(*D* 29). 이블린과 남동생들마저 어린 나이에 밖으로 나가 일하면서 돈을 보태고 있음

---

7) 그 당시 더블린의 주당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약 20실링이었다. 이블린이 주급으로 받은 7실링은 매우 빠듯한 생활비였음을 알 수 있다.

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살림 형편으로 볼 때, 아버지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가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블린의 아버지는  
 그녀가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  
 다고 역지를 부렸고, 술이라도 마시는 “토요일 밤이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평소  
 보다 유난히 심하게 굴었다”(D 29). 이런 “말다툼”은 그녀를 정서적으로 “말할 수  
 없이 피곤하게 만들었다”(D 29). 그의 술값이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블린은 매번 돈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는 이런 실랑이  
 속에서 경제적, 정서적 압박감을 심하게 느낀다. 특히 이블린의 아버지는 음식을  
 살 돈마저 제 때에 주기를 거부하고 최대한 미루며 이블린을 괴롭힌다. 이블린은  
 일요일 저녁 식사 준비를 목전에 두고서야 아버지와 실랑이 끝에 받아 낸 돈이 든  
 지갑을 소중히 쥔 채 인파를 헤치고 허겁지겁 장을 본다(D 29). 그리고 이블린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료품을 사는 것으로 볼 때(D 29), 이블린의 아버지는 집안  
 의 음식이 거의 다 없어질 때까지 돈을 주지 않고 음식 구매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써 이블린을 생존 불안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가부장제의 가장 큰 희생자는 돌아가신 이블린의 어머니였으며, 이 사실은  
 이블린을 두렵게 만든다.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나마 행복했다고 추  
 역하지만, 이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적인 아버지를 막고 희생했  
 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블린을 위해 희생했던 유일  
 한 보호자였던 어머니는 이블린에게 또 다른 무거운 희생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존  
 재가 된다. 이블린의 어머니는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을 최대한 지켜달라고”(D 30)  
 그녀에게 유언한다. 모든 면에서 무능하고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끌려 살아온 어머  
 니가 딸에게 종속의 족쇄를 채우려 한 것이다. 더블린 여성들에게 가부장이란 위치  
 는 제 역할을 못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일지라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복잡한 심리  
 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다. 비록 술에 찌들고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버지일  
 지라도 가부장 제도에 이미 마비된 이블린의 어머니는 가부장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블린의 어머니는 평생 술주정뱅이 남편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경제적으로는 쪼들리는 고된 삶을 살았고 광기로 병들어 희생자로서의 삶을 마감  
 한다. 이블린은 아버지의 폭력의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희생적 삶을 그대로 따라  
 간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가족을 돌보던 이블린은 어머니의 “비참한 삶 - 광기로

끝나 버린 평범한 희생의 삶”(D 31)을 떠올리며 평생 나아질 것 없는 자신의 삶을 예견하고 “몸서리 친다”(D 31). 이블린은 어머니의 삶을 답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최후를 떠올린 순간 프랭크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이블린은 어머니의 “비참한 일생”(D 31)을 상기하며 떠나기로 마음을 다잡는다(D 31). 아버지의 대체자인 프랭크는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 정서적 요구를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블린은 그와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꿈꾼다. 이블린은 프랭크의 부인이 되어 새로운 땅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yres)<sup>8)</sup>에서 그녀만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상점의 상사 게이번(Miss Gavan)의 무사에서 벗어나 돈벌이를 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D 28). 그녀는 “미지의 나라”(D 28)의 “새집”(D 28)에서 모두가 존중해 주길 욕망한다. 프랭크는 이런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하는 그녀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극장의 좋은 관람석에서 「보헤미아 처녀」(*Bohemian Girl*)<sup>9)</sup>를 관람할 수 있게 해 주었다(D 29). 이블린의 형편상 모든 데이트 비용은 프랭크가 지불했을 것이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밤배의 배삯, 그리고 준비된 가정에 대한 경비도 물론 프랭크의 몫이었을 것이다. 노리스는 이블린의 도피가 프랭크의 배신의 가능성으로 인해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훨씬 커 보이겠지만, 사실 이블린은 프랭크가 그들의 도피에 쏟아부은 물질적, 정신적 투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64). 이블린은 프랭크와의 데이트와 달콤한 말들을 통해 아버지에 비해 그를 경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이자,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블린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늘 갈등을 일으켰던 음식 문제는 프랭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블린이 느껴왔던 정서적, 경제적 압박감이 장보기와 음식 마련이라는 행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이블린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미

8) 아르헨티나의 수도로 19세기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목적지 중 하나였던 도시이며 이민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미국, 캐나다, 호주였다(D 29).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바뀌는 전환기 쯤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간다’는 표현은 매춘 알선자를 거쳐 매춘 생활을 하러 간다는 속어로 쓰일 정도로 여성들에게 성적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Mullin 70).

9) 잡시들에게 납치되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온 귀족 가문의 소녀 이야기를 노래한 오페라.

심장하다. 추측컨대, 프랭크는 만족도가 높은 데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는 언젠가 제공 가능하며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음을 이블린에게 내비쳤을 것이다. 즉, 프랭크는 이블린의 아버지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블린은 프랭크와의 관계에서는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블린」에서 돈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음식을 사는 돈이다. 현재의 이블린에게 있어 생존을 위한 음식을 살 돈의 해결이 가장 큰 직면 문제임을 고려한다면 이블린의 프랭크와의 도주 선택은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프랭크는 이블린에게 정서적인 결핍까지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그는 이블린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서는 특별한 문화적인 삶을 제시해 준다. 그는 그녀를 “귀여운 아가씨”라고 부르며 아껴주었고 극장 관람을 시켜주며 그녀를 “우쭐”하게 해 주었다(“She felt *elated* as she sat in an unaccustomed part of the theatre with him”, *D* 29). 이블린이 가본 적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무서운 파타고니아인들”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D* 30). 그는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받고자 했던 정서적 요구들을 채워주는 듯 보였다. 커쉬너(R. B. Kershner)가 프랭크와의 데이트를 “낭만적인 세뇌”라고 언급했듯이(Schwarze 재인용 154), 이러한 세뇌는 이블린으로 하여금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프랭크와의 결혼이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에 그녀는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 남지도 못하는 마비된 모습을 보인다.

이블린은 아버지를 대신할 새로운 가정의 그늘로 들어가 더 나은 삶을 누리기를 꿈꾸며, 존중이 결여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다. 그러나 프랭크와 떠나기로 약속한 후, 이블린은 지긋지긋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갈등한다. 아버지 곁에 남는다면 잠잘 곳과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 주변에 평생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있다(*D* 28). “최대한 가족들을 지키겠다”(*D* 30)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약속도 했다.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자 그리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D* 29). 이블린은 계속 구혼자 프랭크를 두고 갈등한다. 아버지가 말한 “뺏놈들은 다 뺏한 놈들이야”(*D* 30)를 떠올리며 프랭크가 그녀를 구해줄 것이라는 확신만큼 마음 한 켠에

그에 대한 의심도 깊어간다. 프랭크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리를 잡았고, 휴가차 고국에 왔다”(D 30)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게 자신의 정보를 모호하게 감추며 이블린의 불안을 고조시킨다. 화자는 “그가 그 바닷속으로 그녀를 끌어들이고”, “그는 그녀를 익사시킬 것이다”(D 31)라며 프랭크와의 삶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노리스는 프랭크의 출신을 의심하며 프랭크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집에 대해 그녀에게 암시하는 것은, 더블린에서처럼 여전히 “침터와 음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블린을 안심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다(61). 노리스의 의심처럼 이블린도 낯선 이방인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를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와중에 이블린은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토스트에 마음이 흔들린다. 자신에게 “물질적, 정신적 투자”(Norris 64)를 하며 낭만적인 데이트를 제공한 프랭크를 저버리고 이블린의 선택을 바꾸어 놓는 것은 이블린이 아팠을 때 “토스트를 구워 준”(D 30) 아버지와의 추억이다.

최근 들어 아버지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아버지는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다. 때로 아버지가 아주 친절했던 적도 있었다. 얼마 전에 그녀가 몸이 아파 누워 있었을 때 아버지는 그녀에게 유령 이야기를 읽어 주었고 난로에서 토스트를 구워 주기도 했다.

Her father was becoming old lately, she noticed; he would miss her. Sometimes he could be very nice. Not long before, when she had been laid up for a day, he had read her out a ghost story and made toast for her at the fire. (D 30)

왜 하찮은 토스트 한쪽의 기억이 이블린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녀는 더블린에 남을지 떠날지 신중히 계산하지만, 그 계산 안에서 이블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생존에 대한 보호였다. 이블린에게 아버지는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무능력한 가장이었지만 어머니가 안 계신 상황에서 아플 때 음식을 주며 나를 지켜 준 보호자이기도 했다. 정서적으로 고달팠던 이블린에게 보호와 양

육의 음식이란 운명을 가를 만큼 큰 힘으로 작용한다. 그녀가 제공 받은 토스트는 그동안 상처받고 지쳐있던 그녀에게는 보상과도 같은 것으로 그녀의 병을 낫게 하고 그녀를 계속 살게 한다. 이블린이 그토록 탈출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학대, 경제적 궁핍을 프랭크는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존의 안위에 대한 불안을 출신이 모호한 프랭크는 해소시켜 줄 수 없었다. 프랭크가 이블린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곧 생존의 두려움이다. 이블린은 자신이 아파서 쓸모없어졌다고 느꼈을 때,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음식을 주고 보살펴 준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보았던 것이다. 이블린만의 믿음의 저울질에서 프랭크가 진 것이다. 아버지의 토스트는 이블린에게 있어 생존의 지표가 된다. 가부장제에 세뇌된 이블린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양육 되듯이, 자신을 가장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 수 있는 의존적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존을 위한 음식을 나누어 줄 가부장을 원한 것이다.

물론 더 나은 대체 가부장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블린의 상황이 버거웠던 것은 사실이다. 이블린이 프랭크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힘든 책임감을 벗고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그녀의 욕구를 볼 수 있다. 이블린의 아버지가 토스트를 구워준 기억은 이블린의 억눌려 있던 보살핌의 욕구를 발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프랭크에게 기대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 프랭크를 가장의 대체자로서 선택하여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은 이블린 자신의 보살핌의 욕구를 직접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선택 행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블린은 욕구의 실현일 수도 있을 적극적 선택 또한 결국 포기한다. 이블린의 이러한 퇴행적 흐름은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성인이 아니라 평생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성인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녀의 삶을 계속 조정할 뿐이다. 이렇게 이블린이 성장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의존 할 대상을 찾는 것 자체가 곧 인식의 마비 상태에 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 장면에서 조이스는 이블린을 “마치 미약한 한 마리 짐승처럼, 수동적”(D 32)이라고 표현하며 가부장제에 길들여진 종속적 여성의 모습을 가감 없이 묘사한다. 애타게 불러대는 프랭크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블린은 난간을 붙잡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D 32).

그는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그녀에게 뒤따라오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그에게 소리를 질러 댔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불렀다. 마치 미약한 한 마리 짐승처럼, 수동적으로, 그녀는 하얀 얼굴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사랑도 이별도 그 어떤 인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He rushed beyond the barrier and called to her to follow. He was shouted at to go on but he still called to her. She set her white face to him, passive, like a helpless animal. her eyes gave him no sign of love or farewell or recognition (D 32).

만약 이블린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한 위치에서 프랭크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블린에게도 그녀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삶의 토대가 있었다면 욕망에 쉽게 좌지우지되어 끌려다니기보다 자신의 운명에 당당히 맞서는 선택을 했을 것이고, 출신이 불분명한 프랭크에게 홀리듯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약속 따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운명 안에서 언제든 다시 설 수 있는 독립성과 자기 인식은 기존의 가부장, 새로운 가부장 대체자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블린은 여전히 사회가 만든 가부장제 안에서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자신을 마비시킬 새로운 가부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블린의 의식을 대변하는 화자는 이블린에게 프랭크가 그녀를 구해 줄 것이고, 그녀에게 제대로 된 인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D 31), 계속해서 이블린의 인생 전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누군가에 의해 구출되어야만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화자의 이 같은 암시는 더블린 사회와 가부장 구조에 무의식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어떤 마비의 상태를 불러일으키는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블린은 계속해서 남성, 즉 가부장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 통제되고 주체성을 억압당한다. 설령 이블린의 아버지와 달리 좋은 가부장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 권력 아래 좌지우지되는 의존적인 존재로서 길들여져야 한다. 여성에 대한 주체성의 억압은 자신을 온전한 독립 가능한 주체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의해 영원한 타자로써 위치할 수밖에 없다. 주체성을 잃은 채로는 더 나은 삶을 선

택하고 싶었던 이블린의 욕망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다. 위히트는 이블린의 주체가 억압의 상태에서 이미 한정되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욕망이 현실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블린이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조건의 희생자라고 말한다(123). 이블린의 인식의 마비는 사회 구조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블린이 폭력에 노출되고 끊임없는 통제 속에 가뒤흔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블린이 운 좋게 프랭크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 하던 결혼을 했더라도 그녀의 주체성은 계속 억압당했을 것이고 그녀의 인식은 프랭크의 통제 속에 필연적으로 계속 마비의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블린의 선택에 대해 휴 케너(Hugh Kenner)는 이블린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겠지만 사실 프랭크는 경험 많은 유혹자이며 그의 배신에 의해 이블린은 버려졌을 것이라고 언급한다(21). 그러나 게리 레너드(Garry Leonard)와 수제트 헨케(Suzette Henke)는 거짓말하는 선원의 유혹보다 학대하는 아버지가 이블린의 안전에 더 큰 잠재적 위협이라고 보았다(Norris 재인용 59). 이들의 우려처럼 이블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생존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도 자신의 생존 지표를 치열하게 따지며 운명을 고민한다. 마지막 모습에서 이블린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듯한 마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프랭크와 함께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완전한 수동성이라 볼 수 없다. 운명 결정의 순간에 아버지와 프랭크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이블린의 적극성이 개입되고 있다. 그녀는 나름의 전략으로 아버지에게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안전 지표를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블린에 남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 가부장 곁에 남거나 또 다른 가부장 대체자를 찾으며 가부장제로의 회귀를 반복할 것이다. 이제 이블린은 수동적인 마비에서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가부장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마비 상태로 들어간다.

조이스는 이블린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인식의 마비에서 깨지 않는 한 탈출하려는 아버지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은 어디에도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블린은 없느니 못한 아버지와의 가부장적 관계에서 자신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음식 공급 문제를 주체적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가부장제에 종속된 모습으로 자신의 생존과 은신의 문제를 또 다른 가부장 대체자에게 맡기려 한다. 이블린의 이러한 주체성 결여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를 수동적

이다 못해 아예 움직일 수조차 없게 만들고, 고된 삶을 다시 선택하게 함으로써 더 깊은 적극적 마비 상태로 이끈다. 그녀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더 나은 세상은 있을 수 없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이미 마비된 이블린의 몸과 정신은 그 어느 곳으로 떠나든 깨어날 수 없다. “사랑도, 이별도 그 어떤 인식도 찾아볼 수 없는”(D 31) 그녀의 눈은 그 어떤 결정 앞에서도 어머니의 “비참한 일생”(D 31)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2. 「하숙집」: 무니 모녀의 음식 권력을 이용한 대체 가부장 들이기

「하숙집」은 하숙집 주인 무니 부인의 치밀한 계산 아래 진행되는 그녀의 딸 폴리와 하숙인 도란의 강제 결혼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금까지 「하숙집」에 대한 비평은 다양한 각도에서 있었다. 우선 플로렌스 왈즐(Florence L. Walzl)은 「하숙집」을 의식의 마비의 측면에서 분석하며, “공모하는 두 모녀가 근실한 청년에게 닳을 놓는 이야기”라고 말한다(225). 왈즐은 「이블린」과 「하숙집」이 삶이 불안정한 가운데 배우자와 직업이라는 주요한 선택에 직면하여 감정과 의지가 마비된 채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전혀 선택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한다(224). 줄리언 베로니카 울린(Julieann Veronica Ulin)은 조이스가 하숙집을 아일랜드의 상징으로써 묘사했다고 보고, 임시 가정인 무니 부인의 하숙집이 그 시대 아일랜드의 이미지이며, 국가적, 국내적 위기 둘 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한다. 또한 하숙집의 열린 창문과 문은 경계의 투과성을 반영하며, 그 가정 공간 속 손님의 존재는 더블린의 많은 가정들의 본질과 아일랜드의 식민지 현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282). 박윤기는 이블린과 무니 부인은 당시 아일랜드의 사회 속에서 마비된 환경의 희생자로서 가부장적 특권 의식의 허상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가 훨씬 컸다고 보았다(8). 황보귀남 또한 무니 부인의 속물근성이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난봉꾼 남편을 고려해 보면 몰인정한 여성으로 몰아갈 수만은 없음을 강조하며, 조이스가 무니 부인을 남성 중심의 세계가 만들어낸 가부장적 희생물로 그려내고 있다고 주장한다(27). 이처럼 「하숙집」은 의식의 마비, 아일랜드의 상징, 식민정치의 내재화, 그리고 가부장제에 억압받은 여성들의

희생 등 여러 측면에서 폭넓게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분석은 가부장제의 남성 지배에 여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 제도의 작동원리에 음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비록 고영희의 연구에서 음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의 억압이 음식 권력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하숙집」의 무니 부인과 딸 폴리, 도란의 음식 갈구를 토대로 가부장제와 음식 갈구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숙집」의 무니 부인과 폴리는 가부장 부재의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불안을 체화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무니 부인은 음식에 대한 강박적인 모습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있다. 식사 후에 남은 “설탕과 버터를 단단히 보관”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D 52), 그녀는 음식 관리에 매우 철저한 사람이다. 그녀는 “빵부스러기”(D 52) 하나까지 챙기고 관리할 만큼 음식에 대해 집착한다. 이런 무니 부인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절약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는 식자재의 낭비와 의도치 않은 반출을 극도로 염려하는 모습으로써 그녀 내면에 자리한 음식 집착, 갈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집착과 갈구는 곧 더블린 여성들의 음식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불안은 가부장 없이는 바로 생존이 흔들렸던 아일랜드 사회의 현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무니 부인은 “혼자서도 일처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D 49), “의지가 확고한”(D 49)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니 씨와의 결혼은 그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정육업자였던 그녀의 아버지 밑에서 직원들을 감독하던 무니 씨는 결혼하자마자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데다가 사업까지 망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급기야 부인의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한다(D 49).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무니 부인은 신부에게 허락을 받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다(D 49). 무니 부인은 별거 후 하숙집 운영을 시작한다. 「이블린」의 이블린이 결혼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폭력과 생활고에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하숙집의 무니 부인은 결혼에서 벗어나므로써 비로소 남편의 폭력과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탈출한다.

하지만 이렇게 독립한 무니 부인도 가부장 대체자를 찾기 위해 전략을 짠다. 무니 부인의 아들 잭 무니(Jack Moony)는 저속한 표현을 좋아했고 주먹질에 능한

모두가 손을 든 아버지 못지않은 난봉꾼(D 50)이었기 때문에 무니 가족에게 있어 신뢰할 만한 가부장 대체자가 될 수 없었다. 이런 무니 부인의 입장에서는 사위이자 딸의 남편감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녀는 겉으로는 남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한 듯 보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딸 폴리의 남편감을 물색하는 모습을 볼 때 그녀도 여전히 가부장제에 속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 자신이 결혼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딸은 결혼을 통해 다시 가부장제의 속박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즉 무니 부인은 가장의 부재를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실패를 딸의 인생에서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니 가족을 새로이 이끌 번듯한 가장을 “열린 공간”(“The openness of the boarding house”, Ulin 277)인 하숙집을 통해 물색한다. 이때 무니 부인과 딸 폴리는 아버지의 부재를 채울 대체자를 음식으로 유인한다. 그리고 폴리의 따뜻한 저녁이 주는 “가짜 가정”(고영희 36)의 안락함에 현혹된 밥 도란이 그녀들의 가장으로 선택된다.

무니 부인은 하숙집 경영에 이미 폴리의 젊음과 매력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딸에게 이상한 남자가 꼬이는 것을 우려해 폴리를 하숙집으로 불러들여 잔일을 시키는 듯 했지만, 사실 무니 부인은 “젊은이들이 주변에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D 51)는 사실을 알고 폴리를 하숙집에 불러들인 것이다. 무엇보다 폴리의 소환에는 폴리의 남편감을 찾기 위해 “젊은이들과 마음껏 어울리게 하려는 의도”(D 51)가 숨어 있었다. 무니 부인은 적당한 가부장 대체자를 기다린다. 폴리는 무니 부인의 바람대로 젊은이들과 잘 어울렸지만 그들에게 “심심풀이 상대 그 이상은 아니었다”(D 51). 폴리는 호리호리한 열아홉 살 처녀였고 활기찬 성격으로(D 51) 가끔 일요일밤 거실에서 열리는 모임에서 “저는....바람 난 처녀예요”(D 51)라는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 시절 보통의 어머니였다면 딸에게 성적인 의미가 섞인 노래를 이방인 하숙인들 앞에서 공연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무니 부인은 젊은 딸을 상품화하여 하숙집 경영에 이용한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하숙집에 대한 안 좋은 소문으로 말이 나기 시작한다(D 54).

무니 부인의 하숙집에는 폴리의 젊음이라는 유인책에 앞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영전략이 있었다. 하숙비는 술값을 제외하고 “식사를 포함해서” 15실링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담”<sup>10)</sup>이라 불렀다(D 50). 하숙집의 주인이자 식사제공권을 가진

10) 그 당시 더블린의 하숙집들이 공공연히 매춘이 이루어지던 장소로 인식되었음을 감안할 때 매춘을 하는 하

무니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담이라 부르며 기분을 맞춰 준다. 식사비가 포함된 하숙비 책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1차적 의미는 무니 부인이 식사비를 받고 음식을 주는 행위로 보여지나, 더 깊은 의미에서 볼 때 하숙인들은 돈을 주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음식의 권리를 무니 부인에게 전권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가 “요령 있고 엄격하게”(D 50) 음식의 권리를 받아 관리하고 그들은 그렇게 무니 부인에게 관리 받게 된 셈이다. 여기엔 안락한 가정에 대한 눈속임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영희는 무니 부인이 하숙집의 경제적 기능을 감추고 하숙인들로부터 받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숙집의 가정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한다(35). 이렇듯 가짜 가정을 그럴 듯하게 꾸린 무니 부인의 관리 아래에 있게 된 하숙인들은 그녀에게 마담이라는 경칭을 쓰며 기분을 맞춰 준다. 이것은 무니 부인이 하숙인들에게 식사비를 받고 그들의 음식 권한을 넘겨받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음식 제공권이 생성된 것이며 이러한 제공권은 자신의 딸 폴리의 남편감을 고르는 데도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밥 도란 역시 그 통제권 아래에서 가장 후보로서 음식을 특별 제공 받는 대상이 된 것이다. 고영희의 주장처럼 무니 부인은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권력을 얻으려 한다(7). 그녀들의 이러한 음식 제공은 그녀들의 음식 갈구의 또 다른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음식 갈구와 따뜻한 가정, 정서적 충족에 대한 갈망을 그대로 도란에게 비추어 그것을 역이용한 것이다.

가족을 떠나 타지 생활 중인 외로운 도란은 따뜻한 음식, 가정, 보호의 정서적 욕구를 가슴 한 켠에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니 부인이 깔아 놓은 가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폴리가 차린 따뜻한 저녁 식사로 인해 폴리에게 무장해제 된다.

몹시 늦게 퇴근하는 날 그의 저녁 식사를 데워 주었던 사람은 그녀였다. 밤에 모두가 잠든 집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다는 생각에 그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얼마나 사려 깊은 여자인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밤이면 영락없이 그를 위해 작은 편치 컵이 준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

숙집의 여주인을 부르는 암시로써 조롱 섞인 가짜 존경의 용어이다.

On nights when he came in very late it was she who warmed up his dinner. He scarcely knew what he was eating, feeling her beside him alone, at night, in the sleeping house. And her thoughtfulness! If the night was anyway cold or wet or windy there was sure to be a little tumbler of punch ready for him. Perhaps they could be happy together. . .(D 55)

도란은 폴리의 “사려 깊은”(D 55) 따뜻한 음식 제공에 고마워하며 폴리의 가정적인 모습에 흔들린다. 오랜 객지 생활 중인 도란은 외로운 자신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폴리에게 특별한 마음이 들었다. “늦게 퇴근하는 날”(D 55)이면 도란은 몹시 피곤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폴리가 아니었다면 저녁도 거른 채 잠들어야 했을 것이거나, 아니면 늦은 밤거리의 식당을 전전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폴리의 음식이 주는 가정의 안락함이 세파에 대한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Bowen 264). 폴리는 날씨라도 안 좋은 날엔 하루의 피로를 위로해줄 펀치(punch)<sup>11)</sup> 컵을 그 앞에 대령하는 등 도란의 가장 지치고 외로운 순간을 알아챘고 그러한 정서적 허기를 음식으로 채워준다. 이처럼 폴리의 따뜻한 저녁은 도란으로 하여금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D 55)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한다(고영희 35). 고영희는 이 순간의 기억은 그의 결혼 결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35). 이는 「이블린」의 이블린이 아버지의 음식을 추억하며 더블린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 이블린에게 아버지의 토스트가 자신에 대한 적극적 부양을 증명해주는 매개체였던 것처럼 도란에게 있어 폴리의 따뜻한 펀치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신호로 보였던 것이다. 도란은 허기와 외로움에 대한 일시적 충족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물론 밥 도란이 폴리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란은 상황이 어찌 되었든 깊은 관계였던 연인 폴리를 두고 무니 부인 못지 않게 온갖 계산을 한다. 두 사람의 일이 공공연한 일로 소문이 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도란은 그녀가 자신을 유혹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전적으로 그의 탓만은 아니라고 여긴다(D 54). 게다가 무니 부인의 하숙집에

11) 와인, 위스키, 럼주 또는 기타 술을 뜨거운 물이나 우유, 꿀 또는 향신료와 혼합한 뜨거운 음료로 축거나 비가 오는 날씨에 인기가 있다.

대한 이상한 말<sup>12)</sup>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D 54) 그는 자신이 뒷에 걸려들었음을 확신한다(D 54). 도란은 “독신자 특유의 꼼꼼한 기억력”(D 54)으로 사건을 끼워 맞춰 보고, 폴리가 자신에게 한 모든 일과 관련해서 그녀를 좋아해야 할지 경멸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D 54). 도란은 자신이 두 모녀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만 좁은 동네와 평생 일터에서 쌓은 그의 신용 때문에 폴리의 임신에 결혼으로 보상해야 할지, 아니면 자유를 위해 도망쳐야 할지 고민한다(D 54). 그는 신중하고 건실한 서른 중반의 청년이다(D 52). 그는 가톨릭계 주류업자의 사무실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정착할 돈도 꽤 모았다. 젊은 날 한 때 방탕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젠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며, 주위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D 54). 이렇게 신중했던 그가 “천박하다”(D 54)고 까지 생각하는 폴리에게 여지를 주고 결국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가 그녀를 전적으로 사랑했다면 친구들이 그녀를 비웃을 것을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D 54). 도란은 그의 가족들이 그녀를 무시할 것을 직감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난봉꾼 아버지의 평판도 염려되었다(D 54). 도란은 폴리와 결혼이 전혀 달갑지 않았지만, 더블린의 모든 시선이 도란의 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그는 결혼을 선택한다. 도란은 관습적인 도덕성에 대한 우려와 유리한 지위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원치 않는 폴리와 결혼하기로 동의하지만, 이것은 건전하고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이며 사랑이나 희망이 없는 함정을 선택한 것으로 이 선택은 삶의 공허함을 예고한다(Walzl 225).

두 모녀는 이미 새로운 가부장 들이기 계획에 처음부터 서로 공모하고 있었다. 폴리는 “어머니가 지켜보는 것을 알았고”(D 51) “어머니의 계속된 침묵”(D 5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영악한 폴리는 어머니의 기다림이 도란과의 결혼 성사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간파한다. 무니 부인이 눈감아주지 않았더라면 폴리의 음식 제공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무니 부인은 언제 모르는 척 해야 할지와 언제 끼어들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D 51).

폴리는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계속된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모녀간의 노골적인 공모는 없었다. 노골적인 이

12) 매춘을 하는 하숙집이라는 모종의 소문.

해도 없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해 하숙집 사람들 사이에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도 무니 부인은 끼어들지 않았다. 폴리의 태도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젊은 남자는 확실히 불안해 졌다. 결국 적당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자 무니 부인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고기 썰는 칼로 고기를 다루듯이 도덕 문제를 다루었다. [. . .]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였다. 그녀는 솔직하게 물어 보았고 폴리 역시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어색함을 느꼈다. 그녀는 문제를 너무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거나 일부러 묵인한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다 보니 어색해 졌고, 폴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암시는 항상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순진하지만 영악한 그녀가 사실은 어머니의 인내 너머 어떤 의도를 눈치 채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다 보니 어색함을 느꼈다.

Polly knew that she was being watched but still her mother's persistent silence could not be misunderstood. There had been no open complicity between mother and daughter, no open understanding but, though people in the house began to talk of the affair, still Mrs Mooney did not intervene. Polly began to grow a little strange in her manner and the young man was evidently perturbed. At last, when she judged it to be the right moment, Mrs Mooney intervened. She dealt with moral problems as a cleaver deals with meat: and in this case she had made up her mind. [. . .]

Things were as she had suspected: She had been frank in her questions and Polly had been frank in her answers. Both had been somewhat awkward, of course. She had been made awkward by her not wishing to receive the news in too cavalier a fashion or to seem to have connived and Polly had been made awkward not merely because allusions of that kind always made her awkward but also because she did not wish it to be thought that in her wise innocence she had divined the intention behind her mother's tolerance (*D* 51-52).

밥 도란에 대한 은밀하고 조용한 결혼 계획은 노골적이지 않았을 뿐 엄연한 공모였다. 물론 아직 순진함이 남아있는 폴리는 처음부터 결혼을 계산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쾌락을 위해 도란과의 관계를 시작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 결혼이라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폴리는 외로운 도란에게 따뜻한 음식을 특별히 제공하는 일이 그에게 어떤 환상을 일으키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니 부인은 도란에 대한 폴리의 음식과 술 제공을 묵인한다. 무니 부인이 별거 중인 초라한 남편에게는 “돈, 음식, 집, 그 어느 것도 주려 하지 않았던”(D 49) 그녀의 냉정한 태도와 비교해 볼 때, 도란에 대한 음식과 술 제공에 대한 묵인은 새로운 가부장 밥 도란에 대한 무니 부인의 긍정 신호였음을 알 수 있다. 영악한 폴리는 어머니의 신호를 알아챘고 도란과 가까워지기 위해 늦은 밤 음식을 차린다. 그녀들은 그 일이 사회적 도덕 기준을 벗어나 수습 불가능해 질 때 까지 서로 모르는 척 조장하며 함께 공모한다. 외로운 도란의 음식 갈구를 비집고 들어가 환상을 심어 준 그녀들의 음식 제공은 결국 성공한다(고영희 7).

무니 부인은 도란이 받을 못 뺄 “적당한 때”(D 51) 임신이 되자 “도덕 문제를 고기 썰는 칼(cleaver)<sup>13)</sup>로 고기를 다루듯이”(D 51) 능숙하고 단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무니 부인의 성격은 무니 씨와의 별거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분명 무니 부인은 덩치가 큰 여성이고, 무니 씨는 체구가 작은 술주정뱅이 남성인데 왜 그렇게 무니 부인은 당하고만 있었을까? 여기에서도 무니부인의 숨은 계략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노리스는 무니부인이 나쁜 결혼과 나쁜 남편의 희생자가 맞는지, 아니면 적절한 사건에 음모가 숨어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99). 또한 노리스는 화자가 도입부의 정육점의 비유를 통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정육점과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의 공간의 분리로 문명화된 은폐, 즉 숨겨진 폭력과 잔인함에 대한 은폐의 문제를 도입부에서 설정하고 있다고 언급한다(98). 숨겨진 폭력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서적 폭력과 공공연한 사회 제도의 암묵적 폭력을 포함한다. 무니 부인이 쓸모없어진 남편과의 별거를 위해 남편의 폭력을 어떤 방식으로 더 드러나게 했는지, 그를 얼마나 더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화자는 말하지 않지만, 무니 부인이 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동정도 자비도 배려도 없는 잔인함과 폭력을 숨기고 있음이 암시된다. 그

13) 도살한 동물의 사체를 자르는 크고 무거운 네모난 정육점용 식칼.

녀에게 도란과 폴리의 일은 남녀 간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고기 자르듯이 단칼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였다. 강제 결혼을 하게 된 도란에 대해서는 한 순간도 걱정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할의 도덕적 망설임도 없는 무니 부인이 딸의 결혼을 통해 가부장제 재편입을 꾀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그녀 또한 가부장이 없는 가정이 포기해야 하는 사회의 이익 추구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가부장 부재의 상황을 번듯한 사위 들이기를 통해 채우려 한다.

「하숙집」은 「이블린」의 아버지처럼 무능력하고 난봉꾼인 남편을 버리고 독립한 무니 부인이 딸의 남편감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더블린 사람들의 도덕적 마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분명 도덕적 마비의 경고를 포함하며 인식의 사이에서 항상 경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게 있어 음식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상처이자 채워지지 않는 갈구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니 부인과 폴리, 도란의 결혼 정치 과정에 음식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무니 부인과 폴리는 하숙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적당한 가부장 대체자를 세우게 된다. 우리는 이들이 음식을 이용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하고 결국 강제 결혼을 이끌어낸 사실에서 사람들 속에 감춰진 음식 갈구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들 모두가 더블린 사람들 공통의 사회경제적 허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결국 세 사람의 음식 갈구는 사회경제적 허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행복과 안정을 향한 갈구인 것이다.

### 1.3 「진흙」: 마리아의 플럼 케이크에 감춰진 가부장 종속 욕망

「진흙」은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긴 노처녀 마리아의 하루 저녁의 이야기이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인 점과 이야기의 배경이 할로윈 저녁이라는 점, 그리고 마녀 같은 그녀의 외모 때문에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Virgin Mary)와 마녀(Witch)의 상반된 이미지로 나누어 평가하여 왔다.

알즐은 마리아에 대한 성녀와 마녀의 엇갈린 제안들이 그녀의 개인적인 좌절감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의 종교적 정신의 억압을 반영한다고 해석한다(447). 헬렌 네베커(Helen E. Nebeker)는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처럼 처녀성이지만 조와 앨피의 “적절한 어머니”로서 모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137) 마리아의 위치를 마녀가 아닌 성모 마리아와의 유사성에서 찾는다. 마이클 데이비스(Michael F Davis)는 조이스가 「진흙」에서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 사이의 유사성을 동원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마리아를 극도로 풍자하고 조롱함으로써 그녀의 표면적인 순수함의 저속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중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254). 마사 스톨먼(Martha Stallman)과 마고 백커스(Margot Backus)도 마리아를 순결의 상징이 아니라 예전에 사생아를 낳았을지도 모를 과거가 있는 노처녀로 분석한다(137). 그들은 조이스가 그의 작품들에서 눈의 색깔을 통해 성적 일탈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숙집」의 폴리와 매우 유사한 마리아의 녹회색 눈은 마리아가 비평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언급한다(132).

또한 마리아는 보편적으로 가부장제의 희생적 인물로 평가된다. 김미령은 마리아의 삶은 가부장 사회에서 제한받고 종속된 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더블린의 독신 여성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평한다(18). 황보귀남도 마리아를 가부장제의 또 다른 희생자로 보았다. 마리안 아이데(Marian Eide)는 조이스가 「진흙」의 마리아와 성서의 인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Maria Magdalena)<sup>14)</sup> 사이의 연관성을 통해 사회적 위선을 폭로하고 사랑, 가족, 공동체의 현실적인 배치를 분석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조이스는 더블린의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 가치”에 맞서 비가족 공동체의 현대적 버전을 제시한다고 말한다(58). 아이데가 주장하는 “현대적 버전의 비가족 공동체 제시” 또한 가부장제에 편입하지 못한 채 지탄받고 소외당하는 여성들의 사회관계 회복과 연결의 문제이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진흙」에 대한 비평은 마리아의 성녀와 마녀의 이미지가 갖는 의미 분석과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이었다.

14) 성녀 마리아는 성녀이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여인으로 성적 타락의 이미지를 갖는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타락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성녀와 마녀의 이중적 이미지를 갖는다.

이러한 비평의 흐름 속에서 가부장제가 음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특히 마리아의 욕망이 음식으로 표출되는 이유가 가부장제에 대한 마비에서 비롯됨을 밝히려고 한다. 본 논문은 마리아의 욕망에 집중한 노리스의 연구와, 마리아의 욕망 실현이 음식을 통해 시도되고 있음을 주장한 고영희의 연구를 근거로 논지를 발전시켰다. 노리스는 이 작품의 목적이 인간의 담론과 인간의 삶 속 욕망의 강력한 작용을 극화하는 것이며, 노처녀인 마리아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욕망, 인정과 명성에 대한 욕망을 구현하는 인물이라고 평한다(206). 고영희는 마리아가 「하숙집」의 무니 부인처럼 아일랜드의 식민지 음식 정치를 내재화하면서 음식을 권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음식을 정치적 매개체로 삼는다고 주장한다(38). 고영희에 따르면 마리아는 미적 감각을 통해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음식을 조의 가정의 일원이 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39). 노리스의 비평 또한, 마리아와 화자의 자기 기만적인 서술조작 분석을 통해 마리아의 이중 심리를 밝히고 있으나 그녀의 이중적 심리 안에서 드러나는 음식과 관련된 태도에 대한 분석은 고영희의 식민지 내재화와 음식의 생명 권력 사이의 관계 비평이 유일하다.

마리아는 무의식중에 음식을 이용해 조 부부에게 환심을 사서 인정받으려 한다. 하지만 왜 무엇을 위해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할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가부장제로 편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가부장 사회가 바라는 여성처럼 행동함으로써 자신이 아직도 여성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가임기가 지난 노처녀로 창녀도 성녀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잃은 무력한 존재이며, 가부장제 관점에서 그녀는 죽은 존재와 같다(Leonard 191).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사서 조의 가정에 제공하려 한다. 자신이 일하는 세탁소에서도 마리아가 차리는 식탁은 경건하게 오차 없이 공평히 나누어 차려진다. 그녀는 공평하지 못한 음식의 분배가 가져올 불만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마리아에게 있어 자신의 사회경제적 허기를 채워주는 생존 음식은 소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욕망을 거울삼아 음식에 담긴 타인들의 허기와 욕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가부장제 편입에 대한 숨겨진 욕망 실현을 소중한 음식을 통해 시도한다. 본 논문은 고영희와 노리스의 비평을 토대로 마리아의 가부장제 종속의 마비와 음식에 대한 욕망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흙」의 화자가 서술의 왜곡을 통해 그녀의 현실적 결여를 감추려는 자기기만의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부장을 갖지 못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대체 가부장을 얻기 위해 음식을 수단으로써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마리아는 사회경제적 허기를 숨기고 자신의 욕망을 숨기기 위해 자기기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노리스에 따르면 마리아의 자기기만을 돕는 이는 「진흙」의 화자이다. 화자는 가족, 재산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없는 가난한 노처녀가 마비된 더블린에서 그녀의 인간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이 목표를 위해 독자를 속이려고 한다(141). 이야기의 시작은 중년의 노처녀 마리아를 위해 꾸며진 무대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다. 마리아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람들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흙」의 화자는 “누구나 마리아를 좋아했고”(D 83), 그녀가 맡은 일의 한 치의 오차 없이 척척 해냈다고 묘사한다(D 83). 마리아는 세탁소에 다소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콧소리를 섞어 말하는 소녀 아이 같은 나긋함으로 “평화 중재자”(D 83) 노릇을 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마리아는 숙식이 제공되는 이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한 여성처럼 보여지며, 마리아 스스로도 “독립해 살면서 주머니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D 85)하고 만족한다. “그녀는 조와 엘피 형제를 키웠지만”(D 83), 그들은 가톨릭 신자인 마리아를 프로테스탄트 자선기관인 더블린의 등불(*Dublin by lamplight*)<sup>15)</sup>이라는 세탁소 주방보조로 보낸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가톨릭 신자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개신교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탐탁치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타락한 여성들의 갱생 기관인 세탁소에 대해서도 개신교 기관인 것과 벽에 붙은 갱생을 촉구하는 벽보만 빼면 모두 좋다고 한다(D 83, 84).<sup>16)</sup>

이처럼 『진흙』의 화자는 서술의 왜곡을 통해 마리아의 순조롭고 만족스러운 환

15) 이 기관은 타락한 여성들의 갱생을 위해 설립되었고 과거에 매춘부였거나 고령의 매춘부들에게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제공했다. 하지만 아이데는 조이스가 「진흙」을 통해 이 세탁소에서 노동착취가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8).

16) 마리아는 특히 “온실”(conservatory)에 식물을 기를 수 있어 만족한다고 이야기 하는데(D 83), 노리스는 온실이라는 단어는 세탁소가 아닌 대리석 홀에 사는 사회 계층에서 가져온 것임을 지적한다(209). 온실이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여유로운 사람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기만을 위해 마리아는 그 온실 공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격상시키려 하는 것이다.

경 설정을 위해 계속 마리아가 속하기를 원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인정 받는 여성의 위치로 “복원”(“restore”, Norris 208)한다. 마리아가 일하는 더블린의 등불 세탁소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써 복원의 기능을 가지며 세탁소의 이름에서 등불이 의미하는 바도 이러한 복원의 희망을 품고 있다. 노리스는 「진흙」의 화자가 마리아의 인정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며(207) 이러한 화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흙의 화자는 마리아의 인정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수사학은 심리적인 현실성의 기만과 조건에도 그녀의 아름다움, 남편, 자녀, 가정, 부, 지위에 대한 “결여”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론적으로 마리아에게 복원되도록 한다.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story's narration serve the function of gratifying Maria's desire for recognition. The rhetoric is shaped to restore to Maria, discursively, everything that might seem to constitute a "lack" for her-beauty, husband, children, home, wealth, status-albeit with the qualifications and feints of psychological realism (207).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풍족한 여성의 위치로 마리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끊임없는 화자의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현실적인 처지는 곧 만족스럽지 못함이 드러난다. 화자의 진술들과 그녀의 사회경제적 처지 사이의 모순들로부터 꾸며진 거짓임이 드러난다. 사실 마리아는 자신이 바라는 부, 명예, 젊음, 외적인 아름다움 등 모든 가치들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이다. 조 형제가 선물해 준 애지중지하는 검정 지갑 속에도 반 크라운<sup>17)</sup>짜리 동전 두 개와 잔돈 몇 푼이 전부다(D 83). 게다가 “그녀는 아주아주 작고, 코가 길고, 턱까지 아주 긴 모습이라 옷을 때면 코끝이 거의 턱 끝에 닿을 정도”여서(D 82) 아름다움의 사회적 기준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 모든 신호들이 그녀는 가난하고, 늙었고, 허드렛일을 하고, 아름답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세탁소를 떠나 기도원으로 가

17) 1크라운은 5실링이므로 마리아의 지갑에는 5실링과 몇 펜스가 들어 있다. 그 당시 더블린의 주당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약 20실링인 것을 감안하면 5실링은 1인 최저 생계비 정도이다.

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임에도, 화자는 마리아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려 한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리아의 말과 만족스러운 상황을 의심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가부장제 편입을 그토록 원하는가? 「진흙」의 화자의 묘사와는 반대로 마리아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결핍이 초래하는 결혼 욕망과 조의 가정으로의 가부장제 편입 욕망을 숨기기 위해 자기 기만적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한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부도, 가족도 가지지 못한 노처녀이다. 마리아 또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가부장제 아래에 종속하는 삶을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블린」의 이블린처럼 안위를 위한 가부장의 울타리를 원한다. 마리아는 하루 종일 노동해야 숙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자신을 돌봐 줄 가족도 없다. 조와 엘피 형제들이 다 크고 나니 그 집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고, 조가 갈 곳 없는 마리아에게 이 세탁소에 일자리를 구해 주었던 것이다. 조와 엘피는 자신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리아를 그곳으로 보냈을 것이다. 마리아는 화자에 의해 생물학적인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자식 같은 아이들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며(Norris 208), 조는 마리아를 “진짜 엄마”라고 말하지만(D 83) 그저 말 뿐이었고, 조의 가족에게 마리아는 그저 고용인에 불과했다(Norris 208). 사실 그녀의 상황은 스스로 원한 자립이 아니라 가치 없어진 여성에 대한 유기와도 같았다. 마리아는 세탁소 일자리를 좋아했다(D 83)고 말하지만 매춘부들의 갱생 기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녀에게 달가울 리가 있었을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며,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세탁소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저녁 외출을 하려면 여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그 곳 사람들이 모두 저녁을 마치고 나서야 가능한 엄격한 곳이었다(D 82). 이러한 냉정한 사회 속에서 젊음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하는 마리아의 사회경제적 허기는 이블린의 생존 위기보다 더 컸을 수 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 것만이 가부장제로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결혼도, 조의 가정으로의 편입도 아직 하지 못한 마리아의 허기진 현실에서 그녀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입증해 주는 곳은 그나마 세탁소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세탁소에서 그녀가 결혼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여성임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녀는 독립한 여자가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꽤 만족한다고 했지만(D

85), 실은 2실링 4펜스<sup>18)</sup> 짜리 플럼 케이크를 잃어버린 것에 울음이 나올 만큼(D 87) 경제적으로 취약했다. 따라서 가부장이 없는 마리아에게 세탁소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그녀의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유지하게 해주는 소중한 일이었다. 나아가 세탁소는 또 다른 공동체로써, 결혼이나 조의 가정으로의 편입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 세탁소 안에서 마리아는 주방보조로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세탁소의 요리사는 부엌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커다란 구리 솥들에 얼굴을 비춰보아도 될 정도라고 말한다(D 82). 세탁소에서 주방보조 역할을 하는 마리아는 사람들의 음식을 똑같이 배분하고 나누는 책임을 맡는다. 그녀는 커다란 밤브랙(barmbrack)<sup>19)</sup>을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공급한다. 요리사가 저녁 준비를 마치면 그녀는 큰 종을 울려 알린다. 사람들이 모두 앉으면 마리아는 밤브랙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고 여자들이 모두 네 조각씩 받은 것을 확인했다(D 84). 마리아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가치와 자격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 음식을 오차 없이 공급하고 세탁소의 부엌이라는 안주인의 공간을 이용한다. 가정에서 음식은 가부장을 통해 공급되고 가정 내 권력을 가부장에게 준다. 마리아도 조의 가정과 세탁소에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가부장제로 편입하거나 자신을 받아 줄 공동체에 속하려 한다. 그녀는 결혼에 대한 좌절을 자신의 가치 증명을 통해 계속해서 복원하려 시도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신을 끊임없이 욕망한다.

마리아는 결혼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가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결혼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나이와 외모, 경제력 등 여러 사회적 기준의 평가 관점에서 결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결혼을 마다한다. 마치 마리아는 모두 초월한 듯이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을 욕망하고 있으며 남편 즉 가부장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은 그녀를 가장 크게 좌절시킨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좌절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녀의 행동엔 모순이 가득하다. 그녀는 할로윈 저녁에 미래를 점치는 게임에서 결혼을 의미하는 반

18) 1주일 1인 최저 생계비가 5실링 정도였으므로 마리아는 플럼 케이크 한 조각에 1주일 생계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쓴 것이다.

19) 효모를 넣어 만든 건포도가 들어간 둥근 빵.

지를 집을 것이라는 동료의 농담에 “웃음으로 반지도 남자도 원치 않는다”고(D 84) 말하지만, 사실 “그녀의 눈은 실망스러운 듯 부끄러움으로 반짝였고 코끝은 거의 턱 끝에 닿을 듯 했다.”(D 84) 이 농담이 마리아의 나이에 건넨 농담은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소녀처럼 부끄러워한다. 조 부부에게 줄 플럼 케이크(plumcake)<sup>20)</sup>를 살 때도 점원이 결혼식 케이크냐고 묻자 마리아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힌다(D 85). 점원은 마리아가 시간을 끌며 심각하게 케이크를 고르자 짜증이 나서 한 말에 불과했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아직 결혼 안 한 젊은 여성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식을 의미한다고 착각한다. 결혼식 케이크로 쓰이는 플럼 케이크는 풍요로움과 행복의 기원으로써 그 안에 다산의 의미도 내포한다. 마리아가 단순히 비싸고 맛있는 케이크여서 택했다기보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리아의 결혼 욕망과 더불어 아직 사회가 원하는 여성으로서의 가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 플럼 케이크를 고른 것이다. 가부장제 편입 욕망을 철저히 숨기는 듯 했지만, 마리아가 항상 결혼을 욕망하고 있었음이 여러 상황에서 드러난다. 마리아의 모든 행동은 여전히 구혼을 받을만한 위치에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직 가치 있음에 대한 욕망의 선언이다. 그녀는 결혼에 대한 말과 행동에서 계속되는 모순을 보이고 결혼이라는 자극에 매번 반응하며 그녀의 숨겨진 욕망을 내비친다.

마리아의 가부장제 편입, 즉 결혼에 대한 희망은 전차에서 만난 한 나이든 남성이 보인 호의에 흔들리는 그녀의 행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의 집으로 향하는 전차에서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실망했을 때, 네모난 얼굴에 안색이 붉고, 회색빛이 나는 수염을 가진, 체구가 당당한 신사가 마리아에게 자리를 양보한다(D 86). 노리스는 이 사건이 드러내는 “마리아의 욕망의 로맨틱한 왜곡”(“the romantic distortions of Maria's desire”, 211)을 지적한다. 마리아가 세련된 신사로 보고 싶은 그녀의 소망에 따라 그의 모습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Norris 211). 술주정뱅이의 회색 수염은 환유적 확장을 통해 군인적인 모습으로 대체되고, 그의 무절제한 폭음은 제유적 축소를 통해 사교적인 술 마시기로 대체된다(Norris 211). 그녀는 그 노인이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지 생각하며 그를 한껏 포장한다. “마리아는 말을 건네는 그에게 호의로 답했고 신사는 친절했다”(D 86)고 진술하지

20)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 조금만 말린 건포도, 작은 씨 없는 건포도 등으로 만든 케이크로 주로 혼례용 케이크로 많이 쓰였다.

만 사실 그냥 그는 술김에 몇 마디 붙여본 것에 불과하다(Norris 211). 심지어 어떠한 표식도 없었지만 자신의 욕망을 담아 그가 군대의 대령일 것이라고 생각한다(Norris 211). 전철 안에 젊은 남성들은 마리아에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술 취한 나이 많은 남성만 관심을 보인 것에서도 마리아의 여성으로서의 위치가 드러난다. 마리아가 자신의 여성적 가치에 실망하던 와중에 자신을 무시하는 젊은이들과 달리 아직 괜찮은 자신을 알아봐 준 그 노인 덕분에, 그녀는 여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느낌에 기분이 들뜬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결혼 상대자로서 가치 있는 여성이길 바란다. 이처럼 마리아는 계속 자신만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한다. 마리아가 플럼 케이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잠시나마 가졌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마리아는 회색빛 콧수염 달린 신사한테 온 정신이 팔렸던 사실을 인정하며 “부끄러움과 속상함, 실망감으로 얼굴을 붉힌다”(D 87). 이 실망감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리아는 그 신사인지 술주정뱅이 노인인지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그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마치 구혼을 받은 것처럼 들렸던 것이다. 그 노인을 미래의 가부장으로 가능성을 확대하여 상상하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 받았다고 여긴다. 그녀는 여전히 결혼을 욕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 없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가부장을 얻으면 사회경제적 허기가 채워질 것이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욕망한다.

동시에 마리아는 사회적 경멸의 시선을 부인하며 괜찮은 척 연기하지만 가부장 아래에 있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채 조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화자를 통해 마리아는 “조가 여러 번 그녀에게 같이 살자”(D 83)고 했었지만 거절했다고 이야기한다. 마리아는 이에 대해 “조의 부인이 언제나 친절하게 해주기는 했지만,” “자신이 방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탁소에서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거절했다고 간곡히 부연 설명한다(D 83). 하지만 노리스는 마리아가 대리 가족의 애정을 누리며, 그 가족이 마리아를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애정 어린 대모와 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서술은 마리아의 인정욕구에 의한 욕망일 뿐이라고 언급한다(208). 그들과 같이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설명과 반대로 그녀는 할로윈 저녁에 조의 집으로 가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조가 같이 살자고 하면 한 사코 거절하면서 초대받은 저녁에 그들의 집으로 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마리아는 들떠서 기뻐한다. 마리아가 세탁소의 작은 방에서 홀로 지내는 것에 만족

했다면 조의 가족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할로윈 저녁을 학수고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마리아의 거짓이 다시 드러난다.

할로윈 저녁 하루라도 가족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그녀는 정성을 다해 심사숙고 끝에 조 부부가 정말 좋아할 만한 플럼 케이크를 고른다(D 85). 고영희는 마리아가 가족 구성원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조의 가족을 위해 할로윈 간식을 구입하고 그에 따라 가족의 준구성원이자 특별손님으로서 그녀의 위치를 확보하려 한다고 말한다(39). 마리아는 음식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고 조의 가정으로의 재편입을 욕망한다. 그녀의 전략은 조 부부에게 줄 플럼 케이크를 구입하고,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미 다운스(Downes) 제과점에서 “싼 케이크들”(“penny cakes”)을 여러 개 샀다(D 85). 다운스 제과점의 케이크는 아몬드 당의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헨리가(Henry Street)의 다른 상점으로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조 부부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선물을 고르면서 마리아는 들뜬다. 케이크의 가치 안에 마리아의 가치도 포함되어 함께 커지는 것이다. 마리아에게 플럼 케이크는 단순한 케이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2펜스 4실링 플럼 케이크에 자신의 가치와 욕망을 싣는다. 마리아의 선물이 음식이라는 점은 또 다른 가부장제의 함의를 가진다. 가부장이 공급하는 음식이 사회경제적 안정감을 주듯이 자신이 공급하는 음식도 그와 같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시선에서 가부장이 없는 떠돌이 마리아는 끝까지 결혼을 하지 못 할 경우 조를 최후 혹은 최선의 가부장 대체자로 여기고 있으며 그녀가 건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선물, 음식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그녀의 사회적 허기를 조금이라도 메울 방법이라 여긴다.

마리아가 플럼 케이크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격한 감정의 동요를 보인다(D 87).

마리아는 회색빛 콧수염 달린 신사가 자신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는지를 기억하고는 부끄러움과 속상함, 실망감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놀라게 해주려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2실링 4펜스를 거저 내버렸다는 생각에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고 싶었다.

Maria, remembering how confused the gentleman with the greyish moustache had made her, coloured with shame and vexation and disappointment. At the thought of the failure of her little surprise and of the two and four pence she had thrown away for nothing she nearly cried outright (*D* 86-87).

마리아는 노신사와의 결혼 기대감 좌절과 더불어 조의 가정으로의 재판입의 기대감까지 이중으로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극도로 흥분한다. 노리스는 이 사건으로 마리아와 화자는 당황하고, 그로 인해 화자의 목소리는 마리아의 불안에 동조하여 마리아에게 치명적인 일련의 폭로들을 불쑥 내뱉는다고 설명한다(211). 그녀는 아이들 중 누가 훔쳐 먹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그녀는 평화 중재자이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람으로 이야기 되었지만, 가부장제 편입의 좌절로 인해 그녀의 결핍 가득한 현실적 위치를 그대로 노출하게 된다. 노신사로 인해 혼란스러웠다는 것은 노신사의 호의적인 태도를 구애의 표현으로 확대 해석 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정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혼을 받을 나이가 아님에도 여전히 결혼을 기대하는 마리아의 실망감과 그 노신사로 인해 모든 정신이 팔려서 소중한 플럼 케이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다. 노신사에 대한 결혼 기대감으로 케이크를 잃어버리고 조의 가정으로의 편입까지 무산된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리아가 조 부부에게 훌륭하고 특별한 플럼 케이크를 선물하려던 것과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그 가족에게서 좋은 음식 대신 접시에 담긴 “어떤 부드럽고 촉촉한 물질”(D 88)을 받는다. 비록 할로윈 게임 중 벌어진 아이들 장난이긴 했지만 천으로 눈을 가린 마리아가 집어 들도록 미리 계획된 것은 “정원에 내다 버려야 하는”(D 88) 촉촉한 물질이었다. 화자는 정원에서 가져온 이 촉촉한 물질이 정확히 누구에 의해 준비되었는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진흙」이라는 제목에서 그 물질이 전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진흙을 가리키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조이스는 마리아의 “플럼 케이크”와 조 가족의 “진흙”의 대조를 통해 마리아의 자기 기만적 상황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조 부부에게 플럼 케이크를 선물하는 가치 있는 여성으로 보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실상은 환영받지 못하는 정

원의 진흙과 같은 대우를 받는 처지인 것이다. 노리스는 그녀가 사람들로부터 무시 받고 있으며 마리아가 참을 수 없는 자신의 하찮음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 한다고 지적한다(208). 고영희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물질”이 제공된 상황은 조의 가족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인기 없음과 더불어 그녀의 실제 위치를 명확하게 암시해 준다고 주장한다(36). 화자는 플럼 케이크를 잃어버린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조 부부가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을 권하고, 그녀를 배려해 주고 있음을 강조하지만(D 87) 조의 아이들과 옆집 소녀들이 합세하여 거리낌 없이 마리아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상황으로 볼 때 조의 가족에게 마리아가 어떤 손님인지 짐작할 수 있다. 평소 조 부부의 마리아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누구보다 그 집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숨기려 했던 부모의 실제 태도가 아이들의 태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마리아가 잃어버린 케이크의 범인으로 아이들을 잠시 의심해서 아이들의 기분이 상했던 것(D 86)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물건들이 갖는 의미 해석으로 운을 점치는 할로윈 게임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진흙으로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은 마리아에 대한 무시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마리아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가부장 없이 살아가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냉담한 현실에 대한 반영인 것이다.

마리아는 그 당시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여성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녀는 가치를 인정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고, 대안으로 조의 가정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리아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나이임에도 진심으로 결혼을 원한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해야만 생존 가능한, 못생기고 늙은 여자에 불과하다. 자신이 결혼을 원하는 것이 사회적 시선에서 불가능한 일임을 알기에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만 마리아에게 결혼을 통한 가부장으로의 편입은 생존 보장과 같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가부장의 존재는 그만큼 절실하다. 보호자나 가부장이 없이 당장 일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굶주릴 수 있다는 마리아의 생존 불안은 감춰진 음식 갈구로 이어진다. 마리아의 음식 갈구는 플럼 케이크를 선물로 고르고 케이크를 분실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과도한 실망감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조의 가정에서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 공급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마리아는 음식 공급이 갖는 가부장의 권력을 차용하여 조 부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그녀가 속하고 싶어 하는 가부장제도 한낱 속박의 기준일 뿐 정답이 아님에도 그녀는 음식을 통해 하루 저녁이라도 가족 구성원으로 위치를 인정받고 환영 받기를 원한다. 마리아가 음식 선물을 가지고 조 가정의 일원으로 들어가려 한 것처럼, 음식과 생존이 연결되어 있는 한 가부장제 안에서의 음식은 권력의 매개체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가부장의 권력은 계속 유지 될 수밖에 없다. 남성 중심적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은 사회경제적 허기에 노출된 마리아의 가부장 편입 욕망을 통해 드러나고 결국 여성들로 하여금 가부장 없는 삶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가거나 여성의 가치를 결혼으로 증명하도록 강제한다.

## II. 음식 거부: 남성 화자의 왜곡과 여성의 젠더 역할 수행 거부

『더블린 사람들』 속 여성들 대부분이 음식의 확보와 갈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허기를 채우는 것과 반대로 「죽은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음식을 거부하는 주체적인 여성들이 등장한다. 조이스는 이블린, 무니 부인, 폴리, 마리아를 통해 더블린 여성들의 가부장제에 대한 의식의 마비를 음식 갈구의 모습으로 재현한다.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단편 「죽은 사람들」의 모르칸 자매도 음식 갈구의 모습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모르칸 자매는 성대한 만찬 음식들로 그들의 존재함을 과시하며 사회경제적 허기를 채우려 한다. 그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최고급의 음식만을 고집하면서 가부장 없는 그들의 상황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으로 포장한다. 음식의 여유로운 공급이 가부장 부재를 가려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이스가 그의 작품에서 마비된 더블린의 여성 인물들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들」의 몰리 아이버스(Molly Ivors)나 『초상』의 단테 리오던 부인처럼 남성 권위에 맞서 음식을 거부하는 인물들도 등장한다. 이 두 여성은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이스의 여성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여성들의 등장이 모두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조이스의 소설에서 음식은 가부장제에 마비된 더블린 여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매개체가 된다. 음식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적인 독립은 곧 가부장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주체성을 찾는 기회를 갖게 한다. 가부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며 나의 주체성을 맡기고 음식을 공급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미스 아이버스는 대학을 나온 엘리트 여성으로 가브리엘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재직 중이며, 단테는 그녀의 오빠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고 수녀원에서 교육받은 똑똑한 여성으로서 가정교사로 일한다. 그렇기에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는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음식 거부라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에 있어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유리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저항이 왜 음식 거부 행위로 나타나는가? 남성은 육체적인

우월함과 더불어 권력의 상위를 차지해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무력 저항은 쉽게 저지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거부 의사를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무력적 저항 의지의 한 형태로써 음식을 거부한다. 음식은 음식 제공자에게 권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음식 거부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음식 취득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권력에 회유되지 않고 종속을 거부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즉 생존권에 대한 무심함으로부터 상대 권력에 타격을 줌으로써 주체성을 찾고 오히려 음식을 제공 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또한 식욕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기에 음식 거부는 그 원초적 욕구를 참아내는 것을 통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죽은 사람들」과 『초상』의 만찬 장면에서 음식은 권력자, 즉 가부장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의 음식 거부는 가부장제 거부에 대한 저항 의지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가부장제에 마비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남성적 무력과 여성 지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심리적 저항 방법이었다.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의 음식 거부 행동은, 우리가 화자의 의도대로 글을 읽었을 때 충분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가부장적인 화자의 시선에서 여성답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일랜드의 환대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는 만찬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여성들로 비춰질 것이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 화자의 시선 밖에서 다시 잘 들여다보면 두 여성의 음식 거부는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젠더 “수행”(“performance”, Butler 522)을 거부하는 의미 있는 혁명적 행동이다. 버틀러는 젠더 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부아르가 ‘여성’이 자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할 때, 그녀는 분명히 생물학적 사실로써의 성과 그 성의 문화적 해석 또는 의미로써의 젠더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여성이 된다는 것은, 그 구별에 따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이지만,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이 된다는 것이고, 몸이 여성이라는 역사적 관념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몸이 문화적 기호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한정된 가능성에 순종하여 자신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육체적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

젝트'라는 개념은 근본적인 의지가 발원되는 힘을 시사하며, 젠더는 문화적 생존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용어는 항상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젠더 수행의 속박 상황을 더 잘 제시한다. 따라서 생존 전략으로써의 젠더는 분명 처벌의 결과가 따르는 수행이다.

When Beauvoir claims that 'woman' is a historical idea and not a natural fact, she clearly underscores the distinction between sex, as biological facticity, and gender, as the cultural interpretation or signification of that facticity. To be female is, according to that distinction, a facticity which has no meaning, but to be a woman is to have *become* a woman, to compel the body to conform to an historical idea of 'woman,' to induce the body to become a cultural sign, to materialize oneself in obedience to an historically delimited possibility, and to do this as a sustained and repeated corporeal project. The notion of a 'project', however, suggests the originating force of a radical will, and because gender is a project which has cultural survival as its end, the term '*strategy*' better suggests the situation of duress under which gender performance always and variously occurs. Hence, as a strategy of survival, gender is a performance with clearly punished (Butler 522).

버틀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육체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젠더의 문화적 생존 “전략”을 주장한다.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문화적 생존을 위해 젠더 수행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는 이미 정해진 젠더 수행의 틀을 벗어났을 때 규제를 통해 우리에게 처벌을 내린다(Butler 522). 젠더화된 몸은 무대 위의 배우처럼 문화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반복해서 수행한다(Butler 526). 하지만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는 사회적 처벌을 감수하고 가부장으로부터 음식을 받는 순종적 젠더 수행을 거부한다.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서 남성은 가부장으로서 음식을 공급하고 여성은 그 음식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여 섭취해야 했다. 두 여성의 거부는 상징적으로 “젠더화된 정체성의 재생산”(“reproduction of gendered identity”, Butler 524)을 단절하는 새

로운 능동적 여성상의 수행을 의미한다. 버틀러의 설명처럼 이러한 젠더 역할을 거부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두 여성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젠더 수행 거부의 결과로써 지나친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거나 무리에서 배제되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처벌의 설정을 유도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화자이다. 화자는 곧 사회 제도, 사회적 시선이다. 조이스는 “반복된 연기”(“a performance which is repeated”, Butler 526)에서 벗어난 두 여성의 능동적인 여성상의 수행을 극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남성 중심적 화자를 이용한다. 적어도 이 두 작품에서, 조이스의 화자는 여성 주체와 여성 예술가에게 적대적인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조장한다(Norris 217).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이끄는 대로 두 여성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가부장적 억압 상황을 상기하고 이해해야 한다. 조이스는 우리 자신을 주관적인 여성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페미니스트, 텍스트에 저항하는 독자, 비평가 및 회의론자로 젠더화함으로써 화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계속 반대하도록 이끈다(Norris 217).

노리스를 비롯한 여러 비평가들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조이스가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노리스는 조이스의 소설이 궁극적으로 페미니스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Murfin 185). 이와 반대로 산드라 길버트(Sandra M. Gilbert), 수잔 구버(Susan Gubar) 등이 대표하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선 조이스가 여성을 폄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이스는 분명 사회 제도에 의한 여성들의 희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1904년 8월 노라 바나클(Nora Barnacle)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조이스는 전년도에 있었던 어머니의 죽음을 암 때문이 아니라 아일랜드 사회 내 여성으로서의 무력함 때문이라고 보았다(schwarze 117).

어머니는 천천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로, 수년간의 문제들로, 그리고 나의 냉소적이고 솔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을 때 . . . 나는 희생자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머니를 희생자로 만든 사회제도를 저주했습니다.

My mother was slowly killed, I think, by my fathers ill-treatment, by

years of trouble, and by my cynical frankness of conduct. When I looked on her face as she lay in her coffin . . . I understood that I was looking on her face a victim and I cursed the system which had made her a victim" (*Letter II 48*, schwarze 117 재인용)

조이스는 여성들이 가부장제 종속의 마비에서 벗어나길 누구보다 바랬다. 조이스의 소설은 계속해서 사회 제도를 비난한다(schwarze 117). 조이스의 소설은 자아의 해방을 탐구하고, 사회적인 기대와 규율에 도전하는 여성의 저항 경험을 보여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조이스의 가부장제 저항 관점에서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단테의 만찬 음식 거부를 젠더 역할 수행의 상징적 거부로 보고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조이스가 남성 중심적 화자를 통해 젠더 억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내재화된 가부장적 시선을 자각하게 하고, 역으로 가부장제의 여성 희생에 대한 사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2.1 「죽은 사람들」 미스 아이버스의 젠더 역할 수행 거부

조이스의 「죽은 사람들」은 주인공 가브리엘 콘로이가 아내 그레타 콘로이(Gretta Conroy)와 함께 이모할머니 모르칸 자매의 연례 크리스마스 만찬에 참석하며 시작된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인 가브리엘은 만찬에 도착한 후 자신을 다양한 반응으로 대하는 여성들과 마주하게 된다. 여성들은 각각 가브리엘의 권위를 높여주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 모르칸 자매는 가족의 대표인 가브리엘이 못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계속 그가 도착했는지 확인한다(D 153). 가브리엘은 관리인의 딸 릴리(Lily)의 예상치 못한 저항적인 “말대답”(D 154)에 당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을 “친영파”(D 165)라고 부르는 동료 몰리 아이버스의 공격에 남성적 권위가 흔들린다. 연이어 가브리엘은 만찬이 끝난 후 자신을 성적으로 거부하는 아내에게 분노를 느끼다가, 아내의 첫 연인 마이클 퓨리(Michael Furey)의 죽음에 대한 과거 고백을 듣게 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이

중 의식을 깨닫는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권위적 질서들이 여성들에 의해 무너지는 자아의 위기를 겪는다. 「죽은 사람들」은 가브리엘이 자신의 정신적 마비를 일부 깨닫게 되고, 자기 인식의 눈물을 보이며 끝난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비평은 대부분 주인공 가브리엘의 인식 성장을 의미하는 에피파니(Epiphany) 측면에서 거론되어 왔다. 조셉 게리슨(Joseph M. Garrison)은 『더블린 사람들』의 화자는 마침내 「죽은 사람들」에서 사물에 대한 자신의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난다고 언급한다(295). 릴리 에거스(Tilly Eggers)는 「죽은 사람들」은 가브리엘의 “여성에 대한 전형적 인식”에 대한 “일련의 도전”으로 구성되며(379), 가브리엘의 정체성 상실은 마지막 장면에서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382). 빈센트 쉹(Vincent J. Cheng)은 「죽은 사람들」의 주인공 가브리엘이 결국 아내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됨으로써 감동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적인 현현, 고도로 세련된 개인적 주관성의 자기 인식의 성장에 도달한다고 보았다(19). 멜리사 프리(Melissa Free)도 가브리엘을 불충분하게 현대적이고, 불충분하게 페미니스트적이며, 불충분하게 아일랜드적이며, 불충분하게 관대한 존재라고 비난해 왔다고 지적한다(280). 이렇듯 「죽은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비평은 주인공 가브리엘과 그의 의식을 쫓는 화자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가브리엘과 달리 미스 아이버스는 가부장적 화자의 시선 밖에 머물기 때문에 조이스가 부여한 민족주의자라는 타이틀 이외엔 주목받지 못했다. 그녀는 『더블린 사람들』의 여성 인물들 중에서 가장 주체적인 여성이다. 그럼에도 미스 아이버스는 가브리엘의 심리를 보충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혹은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존재해 왔다. 미스 아이버스에 대한 민족주의 관련 비평이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조이스의 시선과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브리엘을 궁지로 모는 그녀의 도전적 행동은 두 사람 간의 민족주의와 예술의 정치성 대립으로만이 아니라 젠더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읽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미스 아이버스는 그 시대의 깨어있는 지식인 여성으로서 아일랜드 여성의 해방적 역할에서도 기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시 아일랜드 여성의 대학 입학 허용에 대한 “대학교 문제”(“the university question”)<sup>21)</sup>를 화제로 꺼내어 대화한다(D 163-4). 이 대목은 그녀가

21)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국의 엘리트 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의 고급 대학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민족주의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 문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녀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임과 동시에 여성들의 억압 상황을 목도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었다. 그녀가 지식인 여성, 페미니스트 민족주의자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화자는 미스 아이버스의 이러한 부분들을 무심히 대하면서 가브리엘의 심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미스 아이버스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독자들 역시 그런 초점을 비판의식 없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가부장제에 동화되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오히려 미스 아이버스의 저항적인 행동을 불편하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는 미스 아이버스 때문에 기분이 상한 가브리엘의 감정에 휩쓸려 미스 아이버스를 싫어하게 되는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 물론 주인공 가브리엘에 비해 미스 아이버스의 등장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야기 흐름에 있어 주변 인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짧지만 강렬한 그녀의 등장은 “남성 중심 서술의 이데올로기적 요소”(Norris 217)에 저항하게 만드는 텍스트의 분열을 가속화한다. 조이스의 남성 중심적 서술은 가브리엘의 시선을 옹호하며 그를 대변함과 동시에 숨겨진 가부장성을 드러내며 분열된다. 노리스는 조이스가 이러한 텍스트의 분열을 통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여성의 억압과 침묵에 기여하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192).

조이스는 「죽은 사람들」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여성의 억압과 침묵에 기여하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화자 즉 텍스트에 의해 직접적으로 말하여지지 않고, 화자가 말하지 않는 틈, 모순, 침묵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두 개의 텍스트로 읽혀야 한다.

Joyce performs in "The Dead" not only a critique of patriarchy, but a critique of his own art as contributing to the oppression and the silencing of women. These critiques are not overt, however, because they are lodged not in the narration, in what is said by the text, but rather in the gaps, contradictions, silences, in what is *not* said by

---

가의 문제로써 여성의 대학 입학 허용 여부는 이 문제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다(Norris D 163).

the narration. "The Dead" must therefore be read not as one text but as two texts (norris 192).

노리스는 이러한 비판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여지지 않고, 화자가 말하지 않는 틈, 모순, 침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두 개의 텍스트로 읽혀야 한다고 주장한다(192). 텍스트에서 여성 항의는 말해지지만 침묵 되고, 들리지만 거절되며, 부정되고, 그들의 운명은 이야기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연출된” 것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다(Norris 193). 따라서 가브리엘의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화자는 상황을 연출하고 통제하며 미스 아이버스의 권위 도전을 단순화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화자의 이야기가 아닌 미스 아이버스의 시선으로 그녀의 음식 거부에 주목해야 한다. 화자의 전략은 결국 조이스의 궁극의 목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가부장제의 내면화 인식 및 거부이다.

화자는 융통성 없는 미스 아이버스가 순수한 예술가인 가브리엘을 계속 닦달하며 난처하게 만드는 인상을 준다.

가브리엘의 얼굴에 당혹감이 일었다. 그가 매주 수요일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문학칼럼을 쓰고 15실링씩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친영파인 것은 아니었다. [. . .]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심문을 들으려 고개를 돌렸다. 가브리엘은 불안하게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그 난처한 상황에서 호의적인 기분을 유지하려 애쓰다 보니 이마가 붉어졌다.

A look of perplexity appeared on Gabriel's face. It was true that he wrote a literary column every Wednesday in the Daily Express for which he was paid fifteen shilling. But that did not make him a west Briton(D 163). [. . .] Their neighbours had turned to lisen to the crossexamination. Gabriel glanced right and left nervously and tried to keep his good humour under the ordeal which was making a blush invade his forehead (D 164).

이렇게 화자의 시선이 가브리엘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며 그를 항변해 주기 때문에 미스 아이버스는 융통성 없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국수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인물로 비춰진다. 게다가 화자의 편파적인 감정 전달은 계속된 아이버스의 추궁으로 안절부절하는 가브리엘에게 감정 이입하여 우리 또한 불편한 마음이 되게 한다. 그리고 화자는 미스 아이버스의 공격에 가브리엘이 “얼굴을 붉힌다”, “당혹감이 인다”, “마음이 놓였다”, “불쾌한 심정이다”라며 독자들도 가브리엘의 마음에 연이어 동화되도록 이끈다. 화자는 가브리엘의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미스 아이버스의 내적 심리는 묘사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스 아이버스가 “토끼 눈으로 뻘히 쳐다보며 그에게 불편한 질문을 쏟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했다”(D 165)고 묘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편향적 상황 묘사는 노리스의 주장처럼 권력 전복의 상황과 비판, 도전을 불편해 하는 남성 권위의 이중성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가브리엘은 여전히 미스 아이버스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는 자신의 위선적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 지식인으로 자신이 깨어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가브리엘은 사실 사회의 온갖 지배의식 프레임을 뒤집어쓴 이중적 시선의 남성일 뿐이다. 가브리엘은 또한 자신의 내재된 권력의 폭력성과 지배의식을 눈감은 채 예술의 환상<sup>22)</sup>에 사로잡혀 삶을 미화한다. 가브리엘은 「오그림의 처녀」(“The Lass of Aughrim”)<sup>23)</sup>를 어둠 속 계단 끝에 서서 듣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서 우아함과 신비로움을 발견한다(D 182). 그리고는 아내에게 붙일 상징의 의미를 찾는다. 그가 화가였다면 그녀의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D 182). 쉐이 지적하듯이, 그는 브라우닝의 시 「나의 전처 백작부인」(“My Last Duchess”)<sup>24)</sup>에 등장하는 잔인한 백작의 모습을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그

22) 노리스는 예술의 정치성을 강조하면서 조이스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예술의 자기비판을 통해 남성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18). 조이스는 이러한 점을 각성하고 가브리엘을 통해 예술이 갖는 교묘한 정치적 사회 조장 측면을 지적한다. 조이스는 남성들이 그들의 억압성과 폭력성을 깨닫기를 바랐다. 남성 중심적 화자를 따라 우리가 미스 아이버스의 태도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회는 여성이 주체로 떠오르는 것을 불편해한다. 그래서 사회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빌려 더욱 노련한 방식으로 여성을 타자로 살도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내면화 시켜왔다.

23) 아일랜드 전통 발라드. 영주의 유혹을 받은 소작농 소녀가 아기를 데리고 성을 찾지만 영주의 어머니가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내쫓는다. 쏟아지는 비속에서 아기는 소녀의 팔 안에서 차갑게 누워있고 아무도 들여보내주지 않자 소녀는 절망감을 느끼고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한다. 회개한 영주는 어머니를 저주한다.

24) 1842년에 쓰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전 공작부인은 페라라 공작에

대로 재현한다(37).<sup>25)</sup> 이 때까지도 가브리엘은 가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역할극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미스 아이버스의 태도 속에 숨겨진 억압의 저항도 이해하지 못한다. 미스 아이버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당연하다고만 여긴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부장의 배역을 연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마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여성들을 계속해서 타자로 대상화한다.

반면 미스 아이버스는 첫 등장부터 남성 지배적 시선의 대상화에서 벗어나 젠더 수행을 거부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그녀는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는 옷차림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보디스를 입지 않았고 아일랜드의 문장과 모토가 새겨진 커다란 브로치를 옷깃 앞에 달고 있었다.”(D 162) 이 묘사에 따르면 민족주의자인 미스 아이버스는 옷보다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브로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화자가 파인 옷을 입지 않고 여성성을 가리는 옷을 입은 미스 아이버스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자의 뉘앙스에서 일반적인 여성들은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깊게 파인 옷을 입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이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남성의 시선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sup>26)</sup> 여성의 남성 시선에 대한 동의는 남성들의

---

의해 살해 된 것으로 보인다. 화자는 실제 인물인 이탈리아의 알폰소 공작(Alfonso II d'Este, Duke of Ferrara, 1533-98) 이다. 청혼을 위해 온 상대 가문의 손님에게 전처의 초상화를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고 자랑한다.

That's my last Duchess painted on the wall,  
Looking as if she were alive, ...

페라라 공작은 독백에서 백작부인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그녀를 고집 췌고 자기반성이 없었다고 회고한다. 그는 그의 절대 권위와 통제력을 위해 의처증 끝에 아내를 살해한 것이다. “나의 전처”라는 대목에서부터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당시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나타낸다.

25) 페라라 공작은 아름답지만 주체적인 자신의 아내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아내를 죽이고 죽은 아내의 그림을 전시하고 자신의 성의 장식물로 여긴다. 첩은 공작이 여성을 공격적, 남성적으로 여성을 식민지화, 미화하는 무자비한 가부장이라고 보았다(37). 브라우닝의 시를 서평했던 가브리엘이 시의 잔혹한 주인공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 가브리엘도 아내 그레타를 이미지화 하여 대상물로 소유하려 한다. 노리스는 예술이 계급의 사회적 조건(성별, 연령, 인종 등)에 의해 생산되고 구현되는 것을 극화한다고 지적한다(219). 여성에 대한 이미지화는 대상을 아름답게 미화함으로써 대상물의 가치를 포장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지배 욕구를 의미한다. 이 때 예술은 이러한 지배 욕구를 미화하는 도구가 된다. 사회의 교묘한 젠더 역할 문제를 미화된 예술로 복제해 냄으로써 대중들은 포장된 억압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줘야하는 대상적 존재로서 남성 주체의 시선 아래에 머물러야 한다.

지배적 권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 젠더 수행 또한 가부장제에 대한 마비 증거이다. 미스 아이버스가 여성적인 옷차림을 거부하는 것은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 화자의 지배적 시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민족주의 저변에는 여성성 거부, 젠더 역할 수행 거부가 깔려 있다.

미스 아이버스와는 대조적으로 모르칸 자매들은 가브리엘의 남성 권위에 공모하고 만찬의 전권을 넘겨줄 수 있는 가부장 대체자가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모르칸 자매는 아버지와 오빠를 여의고 조카 메리 제인(Mary Jane Morkan)과 함께 여자 셋이서 어려움을 넘기며 근근이 독립하여 살아왔다. 줄리아 모르칸(Julia Morkan)은 교회의 수석 소프라노였고 케이트 모르칸(Kate Morkan)과 조카 메리 제인은 피아노를 가르쳤다(D 152). 하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채 멀리 사는 조카 가브리엘을 대체 가부장으로 의지하며 본인들의 사회적 체면을 세우려 한다. 비록 멀리 살고 있지만 집안의 자랑처럼 여기고 만찬의 주인이 될 그를 기다린다. 그들은 가브리엘의 도착이 늦어지자 혹시 만찬에 참석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2분마다 난간으로 나와 릴리에게 가브리엘이 왔냐고 물었다”(D 153). 모르칸 자매는 “가브리엘이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놓인다.”(D 158)고 말한다. 이렇듯 「이블린」의 이블린과 「진흙」의 마리아처럼 모르칸 자매도 대체 가부장을 원한다.

모르칸 자매는 가부장제에 마비되어 있는 만큼 가부장을 통해 공급되어 젖어야 할 음식들에 집착한다.<sup>27)</sup> 모르칸 자매는 “어셔스 아일랜드(Usher's Island)에 있는 어떤 어둡고 황량한 집의 위층을 세내어 살았음에도”(D 152) 풍성하고 값비싼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함을 과시한다. 좋은 음식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부유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에서 볼 때 싼 음식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이 그녀들이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 지위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검소한 삶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잘 먹고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D 153) “최고급 등심, 가장 비싼 차, 최고급 흑맥주 등

26) 여성들의 전통적인 전시적 역할에 있어 여성들은 보여짐과 동시에 전시되며, 그들의 외모는 강력한 시각적, 에로틱한 인상을 주기 위해 기호화되어 마치 보여지는 대상임을 내포한다(Laura Mulvey 808-9).

27) 모르칸 자매들의 음식에 대한 과시는 고영희의 주장처럼 아일랜드 대기근의 트라우마 영향일 수 있다. 고영희는 모르칸 자매의 크리스마스 파티 음식과 대기근을 연관시키면서 자매의 풍성한 음식에는 환대의 감정이 넘쳐나지만 이 장면은 아이러니하게 기근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언급한다(41).

가장 좋은 것들만 먹었다.”(D 153) 모르칸 자매들이 차리는 크리스마스 만찬 음식은 가부장 부재에 대한 사회경제적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30년째 이어오는 크리스마스 파티만큼은 늘 성대하게 치렀다. 만찬 식탁 끝에는 “갈색으로 잘 익은 통통한 거위” 그리고 “다른 쪽 끝에는 커다란 햄과 양념을 한 쇠고기”가 놓였고, “양쪽 식탁 끝 사이로 곁들이는 요리들이 평행을 이루며 줄지어 놓인다.” “젤리”, “블랑망제와 붉은 잼”, “자줏빛 건포도”, “껍질 벗긴 아몬드”, “스미르나 무화과”, “육두구를 갈아 위에 올린 커스터드”, “금색과 은색으로 포장한 초콜릿과 사탕”, “기다란 셀러리 줄기가 담긴 유리 꽃병”, “포트와인과 세리주”, “오렌지, 미국사과”, “푸딩”, “끝으로 흑맥주, 에일 맥주, 탄산수 등”(D 170-171)이 손님들을 기다린다. 이 모든 화려한 음식들은 모르칸 자매의 음식 갈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르칸 자매들이 가브리엘의 남성 권위를 당연시하고 음식을 갈구하는 모습과 달리 미스 아이버스가 남성 권위에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경제적 안정감 때문이다. 『더블린 사람들』의 여성 인물들 중 그녀는 유일하게 가브리엘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었다. 그녀는 가브리엘과 대등한 교육을 받았고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선생이 되기까지 경력도 동일했다(D 163). 미스 아이버스는 “가브리엘이 친영파 성향의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G. C.” 라는 가명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해 거침없이 따지지만”(D 163) 가브리엘은 그녀의 비판에 적절한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 그는 “그녀에게 거창한 문구를 함부로 쓸 수는 없다”(D 163)고 생각하며 “친영파”(D 165)라는 심한 말에도 그 순간 얼굴만 붉힐 뿐 말을 아낀다. 가브리엘의 남성 우월적 권위도 자신과 사회경제적으로 대등한 미스 아이버스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다.

미스 아이버스의 저항적 태도는 가브리엘의 가부장제 권력을 약화시킨다. 여기에서 다시 화자는 가브리엘의 약화된 심리 묘사를 통해 그의 남성성 불안에 독자들도 동화되도록 이끈다. 가브리엘처럼 독자들도 또한 사회가 정해 놓은 질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들도 익숙한 사회규율 측면에서 미스 아이버스가 여성성 수행을 거부하고 가브리엘의 권위적 남성성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두 사람의 젠더 수행이 전복되는 상황은 화자의 시선을 따라 불쾌함을 느끼도록 유도된다. 미스 아이버스가 남성 권위에 도전할 때마다 화자는 가브리엘

의 불안을 부각시킨다. 그녀의 도전은 가브리엘의 젠더 수행을 방해한다. 미스 아이버스가 음식을 거부하고 떠나자 가브리엘은 “자기 때문이 아닐까 잠깐 신경을 쓰다가”(D 170) 곧 자기를 통제하려던 불편한 힘이 사라졌음에 기뻐하며 가부장적 우월성, 젠더 수행을 되찾는다. 불안요소로 작용하던 미스 아이버스의 퇴장은 가브리엘의 남성성을 다시 회복시킨다.

가브리엘은 미스 아이버스가 가버리자 “과감하게 식탁 상석을 차지하고는 고기 자르는 칼의 날을 살펴보고 나서 포크를 힘 있게 거위에 꽂아 넣었다.”(D 171) “그는 잘 차려진 식탁의 주변 자리에 앉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자리를 되찾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진다.”(D 171) 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미스 아이버스의 “토끼 같은 눈이 자기를 쫓고 있는”(D 165) 상황에선 그 파티의 최고 권위자가 될 수 없었다. 더욱이 그녀의 추궁으로 유럽을 동경하는 마음을 모두 내보이고 “친영파”(D 165) 소리까지 들어 주눅 들었던 터에 다시 상석에 앉아 자신감을 되찾는다. 미스 아이버스의 통제에서 벗어나 포크를 힘 있게 거위에 꽂아 넣는 행동(D 171)은 그가 가진 힘과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써 식민 지배의 식과 여성 억압에 대한 은유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미스 아이버스의 공격으로 인해 가브리엘이 보이는 남성성에 대한 불안은 젠더 역할 수행의 착오에서 오는 불안으로 읽을 수 있다. 남성이 유지하고 가져야 하는 권력이 위협 받을 때 불안은 나타나고 커진다. 더욱이 그 상대가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여성일 때, 가브리엘은 돌아올 반박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가부장적 지위 손상에 대해 불안과 위협을 느낀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여성들에게는 오만하고 우월적인 마음을 갖는다. 그는 자신을 당황케 하는 아이버스에게는 찢찢매면서 그를 모르칸 집안의 상전으로 여기는 그의 이모들에 대해서는 “단지 무지한 늙은 여자들일 뿐인데 무엇을 신경 쓴단 말인가?”(D 167) 하며 무시한다. 하지만 아이버스에게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 그녀가 가진 지식수준이나 순종하지 않는 성격상 말다툼이 불거진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체면의 상실 여파가 클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그는 자신들의 대화가 혹여 다른 손님들에게 들려 그의 권위가 흔들릴까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핀다(D 164). 가브리엘은 남성성을 수행하느라 여전히 가부장적 마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와는 달리 미스 아이버스는 가브리엘과의 언쟁 후에 화려한 만찬을 거부하고

모르칸 집안의 대체 가부장 가브리엘에 의해 분배될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가부장제가 바라는 젠더의 수행을 거부한다. 「죽은 사람들」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은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행동으로써 기능한다. 버틀러는 젠더 정체성이 사회적 제재와 금기에 의해 강요된 수행적인 성취라고 주장한다(520). 그렇다면 미스 아이버스의 젠더 수행 거부하는 사회적 제재까지 각오하는 저항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미스 아이버스는 “배고프지 않았고 예정보다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D 170) 10분이라도 더 머물기를 부탁하며 음식을 권하는 이들에게 끝내 작별 인사한다. 모르칸 자매와 메리 제인, 그레타 콘로이는 당황해서 그녀를 잡는다. 만찬 식탁에 잠시라도 앉기를 거부하고 돌아서는 완강함에 그레타는 “이상한 분이네요”(D 170)라며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같은 반응에서 보이는 미스 아이버스의 행동에 대한 부정이나 배제 또한 버틀러가 말한 “처벌”(522)일 수 있다. 기존 젠더 역할에 의문을 갖지 않고 충실히 살아온 여성들의 눈에 미스 아이버스는 자신들의 파티의 흥을 깨는 불편한 인물로 남을 뿐이다. 모르칸 자매는 가부장의 부재를 가리기 위해 가브리엘로 하여금 주최자의 역할인 거위를 잘라 배분하는 역할을 대신 맡긴다. 만약 미스 아이버스가 만찬에 참석했다면 미스 아이버스는 대체 가부장 가브리엘이 잘라 건네는 음식을 수동적으로 받아 먹어야 했을 것이다. 가브리엘은 상석에 앉아 잘 익은 통통한 거위를 자르며 만찬 식탁의 여성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어느 쪽으로 드릴까요?”, “날개인가요? 아니면 가슴살을 드릴까요?(D 171)” 차례대로 묻는다. 이러한 상황이 미스 아이버스와 가브리엘에게 지워진 사회가 바라는 젠더 수행이다. 가브리엘은 가부장으로로서의 역할 수행을 즐기지만 미스 아이버스는 그 젠더 수행을 거부하고 떠난다.

「죽은 사람들」에서 미스 아이버스는 강력하게 가브리엘의 의견에 반박하고 만찬을 거부함으로써 남성 중심적 담론과 가부장적 권력에 저항한다. 비순종적인 음식 거부 행동은 미화된 여성성 거부이자 상징적 젠더 역할 수행 거부를 의미한다. 아이버스는 사회경제적 여유 때문에 『더블린 사람들』의 여성들 중 유일하게 뚜렷한 주체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한 독립성은 그녀에게 남성 권력 아래에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가부장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준다. 그녀의 주체성은 다른 여성들이 마비된 의식으로 순종하고 음식을 갈구하고 있을 때, 음식 거부로 자신의 저항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스 아이버스는 음식 거부

와 여성성 거부를 통해 사회 담론이 여성이라고 규정해 놓은 젠더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스 아이버스는 남성 화자의 왜곡을 통해 완곡하게 식사하고 가기를 바라는 모르칸 집안사람들의 선의를 뿌리치고 냉정하게 가버리는 고집 센 여성으로 그려지며(D 170) 그녀의 행동은 부정당한다. 거기에 가브리엘은 불쾌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미스 아이버스를 바라다주겠다고 제의하는 신사적 선량함으로 포장된다(D 170).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결말에서 가브리엘 또한 남성 중심적인 화자를 떨구어 내고 자신의 젠더 역할극을 인지하며 마비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보인다. 조이스는 「죽은 사람들」에서 남성에게 대항하는 여성을 재현했고 여성의 필수 가치들로 덧씌워진 순종적 여성 담론 해체를 시도한다.

## 2.2 『젊은 예술가의 초상』 단테의 젠더 역할 수행 전복

에릭 벌슨(Eric Bulson)이 “그의 영적 자아의 그림”(picture of spiritual self, 47)이라고 부른 『젊은 예술가의 초상』<sup>28)</sup>은 조이스의 자전적 소설로,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가 사회 제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성장소설이다. 스티븐은 성장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종교와 사회의 여러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어머니의 희생을 목격하며 성장했고, 종교와 사회 제도가 갖는 가부장적 지배체계에 무의식적으로 순종하는 아일랜드의 집단적 마비를 깨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티븐은 여성에 대해 성녀와 창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인다. 이는 빅토리아 시대에 여성을 가정의 천사(The Angel in the House)<sup>29)</sup>로 이미지화한 영향이었고, 가톨릭 교회에서 주입받은 타락한 이브의 이미지와 순결한 성녀 마리아의 이

28) 본 논문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해석은 민음사, 2001년 출판, 역자 이상옥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참고하여 인용함.

29) 빅토리아 시대(1837년-1901년)의 여성상은 1854-56년 코벤트리 패트모어(Coventry Patmore)의 『가정의 천사』(*The Angel in the House*)라는 시에 잘 나타난다. 이 시는 가정적인 여성성을 미화한 시로써 여성은 순수한 존엄성, 평정심, 안락함 등을 갖춘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도덕적 권위를 가진 고결한 아내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리고 아내가 됨과 동시에 모든 성적 욕망을 승화시킨다. 여성의 모든 욕망은 남편에 의해 통제 된다(Schwarze 118). 슈와르츠는 조이스가 이러한 대중적 담론에 갇힌 여성의 노예적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미지를 부수려 했다고 언급한다(118, 122)

미지 대립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의 결과였다. 따라서 여성은 성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장기의 스티븐은 여성에 대한 자신의 이분법적 시선에 혼란을 느낀다. 데이비드 시드(David Seed)는 『초상』에서 우리는 스티븐이 양립할 수 없는 여성성의 신체적 이미지와 정신적 이미지 사이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다(105). 그리고 여성에 대한 스티븐의 태도는 예술이나 교회에 대한 태도만큼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하며 『초상』은 여성의 대조적인 이미지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고 언급한다(Seed 109).

『초상』 속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의 단테의 가부장제 저항은 스티븐이 조국과 종교를 비롯하여 생물학적 아버지까지 거부하게 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 가부장적 속박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사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만찬 참석은 이제 스티븐도 어른들의 구조 체계 즉 아버지의 가부장 권위를 답습하고 주어진 젠더 역할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 만찬은 단테의 저항으로 판세가 뒤집히고, 그 판의 중심인물이 디덜러스 씨에서 단테로 권력 이동되면서 스티븐 앞에서 디덜러스씨의 가부장 권위는 무너진다. 스티븐은 단테의 저항 행동에서 해방의 메시지 “나는 섬기지 않겠다”(“*non serviam: I will not serve.*”, P 126)를 처음으로 목격한다(Toolan 397). 이로써 스티븐이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기 위한 자연스런 흐름이 깨어진다. 계속된 경제적 몰락과 아버지 가부장에 대한 실망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서 결국 디덜러스 씨를 형식적 아버지roman 인정하게 된다. 결국 그는 소설 후반에서 “내가 믿지 않는 한 나의 가정, 조국, 종교를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한다(P 268).

『초상』에 나타나는 크리스마스 만찬의 음식 거부와 언쟁은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에 이어 조이스의 새로운 여성 저항 재현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사례로써 매우 중요하다. 『초상』의 크리스마스 만찬 자리에서 단테는 가정의 최고 권위자인 스티븐의 아버지 디덜러스 씨(Mr. Simon Dedalus), 그의 친구 케이시 씨(Mr. Casey)와 만찬 초반부터 언쟁을 시작한다.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는 신부들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가톨릭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시작하고, 단테는 그런 발언에 빠짐없이 반박한다.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는 “신부들이 하느님의 전당을 투표소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신부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겠다”(P 29)라는 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톨릭 신봉주의자인 단테를 자극한다. 이러한 도발적 발언에 단테는 “신부들은 항상 옳고, 양떼들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임”을(P 30) 주장한다. 남성들과의 대립에서 단테는 완강하게 자기 의사를 주장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순종적 모델을 깨고 남성 권위에 도전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도전이 음식 거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단테가 왜 음식 거부로 그 자리의 불편감을 표현하고 저항해야 했는지, 그리고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과 단테의 음식 거부의 병치가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리하여 『초상』에서 인습적인 관행을 깨는 주도적 여성 인물, 단테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녀의 전통적 젠더 수행 거부가 가부장의 권위 상징의 공간인 만찬 식탁에서 음식 거부의 저항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와 공모한 남성 중심적 화자의 시선에 지배되어 여전히 단테를 크리스마스 만찬을 망친 여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화자의 편협한 젠더 역할 인식에 대해 밝히려 한다.

「죽은 사람들」처럼 『초상』의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도 “서술과 가부장제의 결탁”(Murfin 183)이 드러난다. 이 장면은 가부장적 아버지와 케이시 씨에게 감정이입한 어린 스티븐의 시점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초상』의 단테 또한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처럼 남성 중심적 화자의 시선에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망친 드세고, 고집 센 가톨릭 신봉주의자로만 대부분 인식되며, 그녀의 행동 안에 내재된 가부장제 저항 의식은 간과된다.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적 이미지는 가부장제 측면에서 볼 때, 순종적인 여성과 순종을 거부하는 여성의 이분법적 이미지로 대체되며,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 단테는 화자에 의해 여성답지 못한 여성으로서 부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노리스가 지적한 것처럼 남성 중심적 화자와 사회 이데올로기에 맞춰진 시선을 거두고 크리스마스 만찬을 영망으로 만든 드센 여성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었던 단테 중심으로 시선을 옮기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록 『초상』에서 단테가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고 가톨릭 맹신자라는 한계에 갇혀 주체적 여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물과는 별개로 여겨져 왔으나, 단테는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보다 더욱 뚜렷하게 전통적 여성 역할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미스 아이버스가 가브리엘의 가부장 권력이 극대화되어 표

현될 화려한 만찬 식탁에 앉기를 거부하고 만찬 장소를 스스로 떠난 참석 거부였다면, 단테는 만찬 식탁에 참석하여 가부장 디덜러스 씨가 음식을 이용해 자신을 배제 시키는 무례함에 정확한 음식 거부 행동을 보여준다. 이를 시작으로 그녀는 남성 권력의 판세를 완벽히 뒤집고 만찬 식탁을 뛰쳐나감으로써 남성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저항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테도 미스 아이버스처럼 사회경제적 불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황에서 여성 억압과 불평등의 상황을 더 잘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단테는 그녀의 오빠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똑똑한 여성이다(P 35). 스티븐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수녀가 되려다가 그만두었는데, 단테는 그녀의 오빠가 원주민들에게 값싼 장신구나 흙 있는 도자기 등을 팔아 돈을 벌던 시절에 미국 동부에 있는 알리게니 산맥의 수도원에서 뛰쳐나왔다(P 34-35).<sup>30)</sup> 디덜러스 씨와 찰스 아저씨(Uncle Charles)는 입을 모아 단테가 영리한 여자이고 박식한 여자라고 말한다(P 7). 이러한 사회적 인정에도 단테의 주체적 의사 표현은 화자에 의해 오도된다.

『초상』의 화자는 종종 어린 스티븐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에 편파적이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말투와 시선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배경을 묘사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벽난로 속에는 수북이 쌓인 장작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고, 가지마다 담쟁이 넝쿨이 휘감긴 샹들리에 아래 크리스마스 식탁이 차려졌다”(P 25-26)는 묘사에서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저녁 분위기에 만족하는 어린 스티븐의 행복감이 그대로 전달된다. 케이시 씨가 그의 목 안에 은화 지갑이 들어있다는 말을 믿어 왔던 스티븐을 놀리느라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선 부위를 톡톡 치자 스티븐도 함께 웃는다.”(P 26) 스티븐과 케이시 씨 사이의 화기에애한 분위기 연출은 케이시 씨와의 친밀감을 보이는 것으로 스티븐의 호의를 노출 시킴으로써 독자들도 또한 케이시 씨에게 호의를 갖게 만든다. 이러한 호의적 시선은 만찬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지속된다. 일례로, “스티븐은 단테와의 언쟁 중간에 화가 나서 두 손을 맞잡은 채 식탁 건너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케이시 씨를 다정하게 쳐다본다.”(P 34) 그리고 케이시 씨가 어둡고 사나운 얼굴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시커먼 눈만은 사납게 보인 적이 없었고, 그 나지막한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흐뭇하다”고

30) 리처드 엘먼(Richard Ellmann)에 따르면 단테의 원래 모델인 리오넬 부인은 그녀의 오빠가 아프리카 원주민과의 거래로 얻은 재산을 그녀에게 남겨주자 수녀가 되려는 야망을 버렸다고 한다(Notes 59, P 285).

(P 34) 표현하며 케이시 씨에게 애정을 드러낸다. 스티븐은 “그런 아저씨가 왜 무슨 이유로 성직자들에게 반대하는 건지 의아해한다.”(P 34) 점점 언쟁이 심화 되어 케이시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인해 이글거리는 상황에서도, “스티븐은 케이시 씨의 말에 전율을 느끼고, 케이시 씨의 열기가 자기 얼굴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P 38) 케이시 씨의 감정 변화를 그대로 이입한다. 불화로 끝나버리는 만찬의 마지막 장면은 어린 스티븐이 아버지와 케이시 씨에게 편파적으로 감정적 동요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단테가 분노로 만찬 장소를 뛰쳐나간 후, 화자는 케이시 씨가 “가슴 아프게 흐느껴 울었다”(P 39), “고통스럽게 흐느꼈다”(P 39)라고 묘사함으로써 그의 아픔에 가슴 아프게, 고통스러운 심경으로 동조한다. 이처럼 케이시 씨와 아버지에 대한 스티븐의 우호적인 호의는 단테와의 언쟁 내내 이들에게 독자들까지 감정적으로 동조하도록 하며, 단테를 만찬을 망친 주역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한다.

반면, 스티븐의 의식을 따라가는 화자는 가부장제에 마비된 시선으로 단테를 바라본다. 집안의 분위기를 따라 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던 스티븐은 아버지와 케이시 씨에게 감정이입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도 또한 단테가 만찬을 망친 것으로 읽을 가능성이 크다. 다니엘 멀홀(Daniel Mulhall)은 이 장면을 단테가 크리스마스 만찬 식탁에서 파넬을 비난하고 가톨릭 편에 서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라고 언급한다(33). 분명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가 단테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녀를 제압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멀홀의 표현처럼 단테의 파넬 비난과 가톨릭 사제 옹호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스티븐의 의식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고로 단테의 파넬 혐오를 그녀의 개인사와 결부시켜버리고 단테의 입장을 단순화시켜 버린다. 그는 “단테가 수녀가 되려다가 뛰쳐나온 여자라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는 그녀가 파넬을 혹평하는 것이 수녀원을 그만둔 여자이기 때문”이라고(P 34)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파넬의 스캔들에 대한 단테의 실망과 배신감에 대한 스티븐의 감정적 동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의 의식은 개신교인 아일린과 놀지 못하게 했던(P 34) 단테의 종교적 편협함까지 함께 떠올리며 단테의 종교적 맹신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리하여 가톨릭 사제에 대한 단테의 맹목적 추종의 불편함 때문에 독자 역시 자칫 스티븐처럼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에게 동조하게 된다. 이처럼 화자의 편향적 서술은 남성들의 좌절된 민족

의 독립과 파넬을 잃은 슬픔에 적극적으로 감정이입 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숨은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과 단테의 가부장제 저항 문제를 놓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만찬의 언쟁 중심에는 아일랜드의 정치적 지도자로 추앙받던 찰스 스투어트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sup>31)</sup>이 있다. 이 만찬은 파넬의 죽음에 대한 아일랜드의 가시지 않는 슬픔과 화합 불가능한 국가의 분열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찬은 스티븐이 파넬의 죽음 이후 클롱고오스(Clongowes) 기숙학교 겨울 방학을 맞아 처음으로 어른들과 만찬 자리를 갖는 것으로 시작된다. 만찬 참석자는 스티븐의 아버지 디덜러스 씨, 스티븐의 어머니 디덜러스 부인(Mrs. Dedalus), 찰스 아저씨, 단테, 아버지의 친구인 케이시 씨이다. 스코트 클레인(Scott W Klein)은 소설의 가장 유명한 장면에서 스티븐의 가족이 정치적, 민족주의적 사건이었던 파넬의 죽음에 대한 논쟁으로 분열되며, 조이스는 국가 결속의 실패를 국가의 정치적, 종교적 분열을 구체화하는 가족 내의 균열로써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029). 파넬은 아일랜드 자치운동을 주장했던 대표적 정치가로서 “아직 왕관을 쓰지 않은 왕”(Klein 1026)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으로 1880년대에 아일랜드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1890년 11월에 보좌관인 윌리 오셰이(Willie O'Shea)의 이혼소송으로 인해, 파넬과 오셰이의 아내였던 캐서린 오셰이(Katharine O'Shea) 사이의 10년 동안의 불륜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지만(Mulhall 32), 이 스캔들은 파넬이 실각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죄로 금지했기 때문에 아일랜드인들의 정서로는 이 스캔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일랜드 가톨릭 신부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넬에게서 돌아섬으로써, 단테와 같은 기존 민족주의 지지자들까지 파넬 반대파를 형성하며 파넬은 정치적 힘을 잃는다. 그리고 파넬은 그 다음 해에 45세의 나이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다.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는 파넬을 배신한 가톨릭 사제들을 비난하고, 단테는 파넬의 지지자 였으나 불륜 스캔들로 인해 파넬 혐오자가 된 상황에서 만찬의 언쟁이 심화 된다.

사실,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은 사회제도에 의해 충실히 부여된 젠더 역할과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그대로 재현한다. 디덜러스 씨는 가부장의 권위를 보이고 성공적

31) 1846년 6월 27일 ~ 1891년 10월 6일.

으로 만찬을 이끌기 위해, 가게 주인이 최고급품임을 강조하는 칠면조를 1기니<sup>32)</sup>나 주고 산다(P 28). 서빙된 음식에 대한 통제 또한 모두 디덜러스 씨의 권한이었다. 디덜러스 씨는 가장자리에 진주 같은 물방울이 반짝이며 매달린 무거운 뚜껑을 쟁반에서 벗기는 행동을(P 28) 시작으로 이러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음식과 부역을 총괄하며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디덜러스 부인의 몫이었지만, 그 음식 통제의 권력자는 디덜러스 씨이다. 이같은 권력을 이용해 디덜러스 씨는 그의 감정을 음식 분배의 불공평함으로 드러낸다.

디덜러스 부인이 말했다. “사이먼, 리오던 부인에겐 소스도 드리지 않았군요?”

디덜러스 씨는 소스 그릇을 잡았다.

“그런가?”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리오던 부인, 미안합니다. 내가 눈이 멀었군요.”

단테는 두 손으로 자기 접시를 가리며 말했다.

“됐습니다. 치지 않겠어요”

-Simon, said Mrs Dedalos, you haven't given Mrs Riordan any sauce.

Mr Dedalos seized the sauceboat.

-Haven't I? he cried. Mrs Riordan. pity the poor blind.

Dante covered her plate with her hands and said:

-No. thanks (P 29).

단테에게만 소스를 권하지 않은 이 무례한 행동은 모두에게 있어서 단테가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만찬의 주인, 디덜러스 씨의 의사 표현이다. 그 차별은 디덜러스 부인이 “리오던 부인에겐 소스도 드리지 않았군요”(P 29)라고 충고를 건넬 때까지 지속된다. 디덜러스 씨는 사과했지만 “내가 눈이 멀었군요”(P 29)라고 정중함이 아닌 자기 비하적인 농담으로 받으며 더욱 예의를 벗어난다. 그는 단테가 거

32) 기니(guinea)는 영국의 옛날 금화로 21실링(shillings)에 해당된다. 당시 4인 가족 일주일 최저 생계비 정도의 금액이다.

절한 “소스를 어린 스티븐의 그릇에 잔뜩 부어버린다.”(P 29)<sup>33)</sup> 어린 스티븐의 의사를 개입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전형적인 지배자의 권위적인 모습이다. 이는 가부장의 말을 잘 들으면 풍부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손님으로 초대받은 단테에게 있어 심리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는 평소에 순종적이지 않은 여성에 대한 무언의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디덜러스 씨는 이후에도 다른 손님들을 차례대로 살뜰히 챙기지만 단테만은 예외이다. 그는 단테에게 식사 내내 음식을 더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권유를 하지 않는다. 디덜러스 씨가 스티븐과 찰스 아저씨의 그릇에 소스를 많이 제공하는 행동과 칠면조 고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배제는 단테에 대한 처벌 행동일 수 있다.

이 장면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는 뒤이은 발언들로 인해 강화된다. 스티븐의 접시에 소스를 부은 후, 디덜러스 씨는 찰스 아저씨에게 “잘 드시고 계시냐?”며 묻는다. 이 질문에 찰스 아저씨는 “잘 먹고 있단다”(“Right as the mail”, P 29)라고 대답한다. 「죽은 사람들」의 가브리엘을 연상케 하는 이 대답은 만찬이 흡족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만찬을 주최한 디덜러스 씨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발언이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도착했음을 “편지처럼 확실하게 여기 와 있어요”(“Here I am as right as the mail, aunt Kate!”), D 153)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가브리엘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과시하는 것이다. 쉹은 로얄 메일<sup>34)</sup>이 악명높은 제국주의적 제도였으며, 이것은 남성주의와 제국주의 이념을 형성하여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 사이의 판단과 위계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27). 지배는 그 자체로 지배적인 질서, 구조, 성별, 인종, 계급, 위계 질서, 주변부 등의 차별을 부과하기 때문이다(Cheng 27). 또

33) 설전 상황에서도 디덜러스 씨는 계속해서 음식을 잘 먹는다. 여성의 식욕은 억제와 조절을 요구하는 반면 남성의 탐식은 정당화되고 권장된다(Bordo 28). 똑같은 상황에서 스티븐의 어머니는 별로 먹지 않았고, 단테부인은 무릎에 손을 놓은 채 앉아 있었다(P 31). 단테, 디덜러스 부인, 어린 스티븐까지 거의 먹지 않는다. 단테는 소스 거부 후 뒤이은 정치 종교적 연쟁의 불쾌감과 모욕감으로 만찬 장소를 떠나고, 평소에도 여성의 미덕으로 억제되었을 디덜러스 부인의 식욕은 설전 상황에서 더욱 억제된다.

34) 여기에서 메일은 영국의 로얄 메일(Royal Mail)에서 온 말로써 그 당시 로얄 메일은 단순 우편 서비스라기보다 제국 간의 편지, 문서, 정보 교환을 책임지며, 제국주의적인 목표인 국가 간 연결과 통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통신이 빠르고 효율적일수록 제국은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로얄 메일은 제국주의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프라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 “mail”은 발음이 서로 같은 “male”의 은유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으며 남성 가부장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찰스 아저씨의 답변 또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옹호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은유적 언어를 통해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단테와의 언쟁에서 밀리자 두 남성은 야비한 방식으로 단테를 치욕스럽게 만들기 위해 노파 이야기를 꺼낸다. 노파 에피소드에서는 여성인 노파가 파넬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주도권을 갖고, 남성인 케이시 씨가 반대로 입에 입담배를 가득 물고 있는 채로 발언권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P 36). 노파는 “성직자를 못살게 하는 놈! 파리의 신탁 자금! 미스터 폭스! 키티 오세이!”(P 35)라고 소리치며 파넬 모독 발언을 한다. 케이시 씨는 담배 씹은 물이 가득한 채로 침을 뱉는 척하며, 그 노파에게 “튀”(P 36) 하고 뱉어버리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수동적 상황을 벗어나고 남성 지배적 권위를 복원한다. 이 상황의 권력 역전 또한 남성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는 노파를 모욕주고, 그녀를 마치 또 다른 음식처럼 만찬 식탁의 화제거리로 올리며 노파를 비웃고 농락한다. 이는 그 노파와 단테 둘 다에 대한 모욕이다. 그들은 노파 이야기를 “digest”(P 34), “sweet”(P 35)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입으로 씹어버려야 하는 음식처럼 표현함으로써 조롱을 강화한다. 나아가, 디덜러스 씨의 ”고기를 이빨로 찢었고“(P 35)와 같이 입으로 행하는 폭력이 계속해서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입은 고기와 같은 살생의 의미를 내포하는 음식을 뜯고, 찢고, 부수는 행위를 시작으로, 욕설, 비난 등의 말로 하는 위협과 폭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두 남성은 노파에게는 침을 뱉는 행동과 더불어 그 이야기의 노파를 균침 도는 음식처럼 비하해서 대하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언어적 폭력을, 단테에게는 노파에 대한 비난과 침 뱉음을 그녀에게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단테를 깎아 내리고, 더불어 간접적인 폭력을 면전에서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는 양가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폭력성은 이미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 곳곳에서도 관찰된다. 디덜러스씨는 칠면조 부위를 “칼로 찢고”(P 31) 들어서 부위를 권하거나(P 31-32), “얼굴을 찌푸려 사나운 짐승의 표정을 짓고 입술로 짹짹 흡는 소리를 내면서”(P 32)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은 언쟁으로 통제되지 않는 단테를 지배하고자 하는 위협이다. 디덜러스 씨는 설전 중 단테의 말에 “접시 위에다 나이

프와 포크를 내던진다.”(P 32) 케이시 씨 또한 단테의 말에 분노를 못 참고 무례하게 접시를 식탁 가운데로 밀어붙인 후 두 팔꿈치를 식탁에 기대며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P 33). 계속 된 설전에 결국 “케이시 씨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식탁을 광 내리쳤다.”(P 38) 두 남성은 음식과 관련된 나이프, 포크, 식탁 등의 집기 들을 내던지거나 내리치면서 음식이 차려진 만찬 식탁의 질서를 혼돈의 상태로 몰아간다. 질서 잡힌 상황을 언제든 원할 때 깰 수 있다는 힘의 과시는 남성 지배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질서를 깨는 폭력적 행동을 통해서라도 두 남성은 권위를 찾으려 한다.

디덜러스 씨가 음식을 이용해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한 것처럼 단테도 자신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저항 의지를 표현한다. 단테는 단호하게 두 손으로 자기 접시를 막으며 “됐습니다. 치지 않겠어요”(P 29)라고 거부 의사를 보인다. 단테는 소스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주체성을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기대되는 젠더 역할에 반발하고 있다. 단테의 소스 거부는 권위적 가부장에 대한 순종적인 젠더 역할 수행 거부를 상징한다. 그녀는 음식 거부를 통해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권력의 흐름을 깨고 권력 구조의 재편성을 시도한다. 또한 단테는 자신의 식사 선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나아가 단테는 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에도 굴하지 않고 같이 언성을 높인다. 그러나 욕설을 쓰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정치에 개입하는 아일랜드 사제들에 대한 연이은 비난에 단테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집안에는 행동도 은혜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P 32)하고 응수한다. 이에 디덜러스 씨는 흥분해서 “접시 위에 포크와 나이프를 내던지고”(P 33) 결국 사제들을 향해 “개자식들 같으니라고!”(P 33)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른다. 화가 난 단테는 이러한 욕설에 “그 분들의 행동은 옳았어요. 그들은 주교님들과 신부님들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분들에게는 명예를 돌려야 한다고요”(P 33)라고 맞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개신교도라고 해도 오늘 저녁에 내가 들은 것 같은 그런 야비한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P 34), “우리가 만약 성직자들에게 얽매어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야훼의 눈동자 같은 분들이지요. 그리스도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범하지 말라. 그들은 내 눈동자니

라 라고요”(P 37)라며 언쟁을 이어간다. 툴란(Toolan)은 이 장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테는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중산층 여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토론 주제에 대해 암묵적인 규칙으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단테의 말에는 예상치 못한 격렬함이 있고, 그녀가 주도하는 대화 빈도는 예상외로 높으며, 남성들의 의견에 침묵으로 인내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회적 규칙을 어기는 그녀의 행동은 의심의 여지없이 남성들의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응과 단테에 대한 그들의 “집단 행동”(“ganging-up”)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된다(397). 즉 순종적이지 않은 그녀의 행동이 남성들에게 “선동”(“incitement”, 397)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누르기 위해 더욱 격렬해진 것이다. 결국 “단테는 미친 듯이 의자를 밀어젖히고 식탁을 떠난다.”(P 39)

그런데 우리는 언쟁에서 남성들의 저속한 표현과 폭력적 행동에 대한 비판보다 단테의 거침없는 언어적 태도가 왜 더 불편하다고 느껴지는지, 그러한 태도의 상황에서 왜 우리는 여성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거두고 인내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아마도 이에 대한 대답은 파티 참석자들의 불편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단테를 제외한 파티 참석자들이 가부장제에 세뇌되어 있음은 그들의 충실한 젠더 수행에서 드러난다. 크리스마스 만찬 식탁은 남녀 간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장소로써, 만찬의 참석자들은 단테를 제외하고 모두 각자의 젠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디덜러스 씨는 가부장으로서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질문도 주도적으로 이끈다(P 32). 모두 디덜러스 씨가 분배하는 음식을 받고 스티븐은 자신에게 너무 많이 부여되는 소스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 자가 권력자가 된다. 스티븐의 식전 기도도 아버지의 허락과 동시에 시작된다(P 28). 디덜러스 부인 역시 오직 만찬의 분위기만을 염려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한번도 내세우지 않는다. 나아가, 그녀는 단테가 두 명의 남성에게서 물리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재하기보다, 단테가 인내해주기를 바라며 그녀를 말린다: “리오던 부인 제발 빌게요, 이제 그 문제는 좀 덮어두시죠”(P 30), “케이시 씨, 여보 사이먼, 그만들 하세요”(P 31), “제발 적선 하는 셈치고, 오늘 만든 정치적 토론은 삼가요”(P 30), “진저리가 나네요, 일년 중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진저리 나는 논쟁을 그만 둘 수 없나요?”(P 33), “리오던 부인, 저 이들에게 대꾸하느라 흥분하지 마세요”(P 38) 라고 말하는 것이다. 디덜러스 부인이 보

이는 침묵하는 희생은 단테의 저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단테만이 강경하게 “입을 다물 수는 없어요. 배교자들이 내 교회와 종교에 대해 모욕하고 침을 뱉을 때 나는 나서서 지킬거예요”(P 33)라고 더욱 힘주어 선언한다. 계속해서 단테는 “파넬은 배반자요, 간음자니까 성직자들이 그를 버렸다면 그는 잘한 것이죠. 성직자들이야말로 늘 우리 아일랜드의 진정한 친구예요”(P 38), “하느님과 종교는 다른 모든 것 보다 앞선다고요!”(P 38)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모두가 가부장제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단테만이 가부장제의 마비에서 빠져나와 젠더 불균형의 부당함에 저항한다. 그리고 디덜러스 부인의 침묵을 옹호하는 화자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모든 만찬 참석자들이 단테의 침묵 거부를 불편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의 뿌리 깊은 원인이 가부장제의 세뇌에 기인한다는 인식과 마주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노리스가 지적했던 여성의 억압과 침묵에 기여하는 예술을 비판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화자의 “모순”과 “격차”를 느끼게 되고, 단테의 여성 역할 수행 거부가 히스테리적 거부가 아니며 가부장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당함에 반발하는 파격적인 저항 행동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단테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자기주장을 할 수 없고, 자기주장을 해서도 안되는 인형 같은 젠더 역할을 벗고 오히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인다. 버틀러는 젠더란 시간 속에서 유한하게 구성된 정체성, 즉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확립된 정체성이라 말한다(519).

젠더는 안정적인 정체성이나 다양한 행위의 근원이 되는 장소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시간 속에서 불분명하게 구성된 정체성, 즉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을 통해 확립된 정체성이다. [. . .] 만약 젠더 정체성의 근거가 겉보기에 한결같은 정체성이 아니라 시간을 통한 행위의 양식화 된 반복이라면, 젠더 변환의 가능성은 그러한 행위들 사이의 임의적인 관계에서, 다른 종류의 반복의 가능성에서, 그 양식의 깨짐, 또는 전복적인 반복에서 발견된다.

Gender is in no way a stable identity or locus of agency from which various acts proceed; rather, it is an identity tenuously constituted in time—an identity instituted through 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 . .] If the ground of gender identity is the stylized repetition of acts

through time, and not a seemingly seamless identity, then the possibilities of gender transformation are to be found in the arbitrary relation between such acts, in the possibility of a different sort of repeating, in the breaking or subversive repetition of that style (Butler 519-520).

버틀러는 이렇게 형성된 젠더 정체성이 양식화 된 행동에 반하는 또 다른 행동의 반복, 양식화 된 행동의 깨어짐의 반복에서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520). 양식화 된 젠더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단테의 여성성 수행 거부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의 반복이 깨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녀의 거부 행동이 수행될 때, 전통적인 순종적 여성의 역할 수행성은 어느 시점에서 결국 전복될 수도 있다. 단테는 음식 거부와 더불어 언어적 대항으로 남성들에게 맞섬으로써 젠더 역할을 거부한다. 단테가 만찬 참석자 모두 그녀에게 기대했던 젠더 역할을 거부하고 의외의 거부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때 깨어질 수 없을 것만 같던 젠더 역할은 정형성에서 벗어나 구조 변화의 기회를 갖는다. 단테는 가부장의 권위 보다 자신의 신념과 주체성을 그 우위에 두고 가부장의 권력을 의외성을 띤 젠더 역할 거부로 무너뜨린다. 그 깨뜨림 때문에 가부장적 남성들은 당황하고 그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의견의 정당함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언어적 폭력과 폭력적 행동을 동원하여 공격한다. 단테는 그녀에게 권해지는 소스 거부를 시작으로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어떤 남성에게도 굽히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는 새로운 여성 정체성 모델이 된다. 단테의 소스 거부는 자기주장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단테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표현한다. 그녀의 행동은 디덜러스 부인의 만찬 내내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순종적인 여성 역할 수행과 대조를 이루고, 더 나아가 이러한 단테의 여성 정체성 전복 행동은 스티븐의 가부장적 정체성에 “양식의 깨짐”(Butler 520)으로 작용한다.<sup>35)</sup>

35) 이 경험으로 스티븐은 단테의 음식 거부가 곧 저항의 신호임을 이해한다. 단테가 소스를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스티븐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잔뜩 부어버리는 아버지에게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무력감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스티븐의 접시에 음식을 잔뜩 담는(P 31) 아버지의 두 번째 소스 제공에서도 반복된다, 이때 스티븐은 거부의 욕구를 경험한다. 단테의 음식 거부 이후에 스티븐은 『몽테크리스토 백작』(*The Count of Monte Cristo*)을 탐독하며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가 자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원수의 부인이 된 메르세데스에게 음식을 거부하는 장면을 재현한다. 그는 자신을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여기면서 오만한 거부의 몸짓으로 포도를 권하는 메르세데스에게 “부인, 나는 머스컷 포

『초상』에서의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은 그 당시 분열된 아일랜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의식은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대기근의 참사를 겪으면서, 삶의 각박함으로 인해 더욱 가부장제와 가톨릭 종교의 속박으로 마비된다. 만찬 장면의 등장인물들 모두 사회적 제도, 종교 등에 의해 마비된 의식을 보인다. 하지만 젠더의 관점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단테는 분명히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세우며 음식 거부 행동으로 남성 지배에 반발한다. 그녀의 음식 거부 행동은 마비된 사람들의 의식과 대비를 이루며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저항 수단이 된다. 조이스는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에 이어 단테까지 여성의 음식 거부를 반복하여 재현한다. 미스 아이버스의 거부가 의외성을 띤 젠더 역할 수행 거부의 초기적 형태라면 단테의 거부는 완전한 젠더 역할 수행 거부의 전복 사례를 보여준다. 「죽은 사람들」과 『초상』에서 반복되는 여성들의 음식 거부의 장면에서 조이스의 화자가 이끄는 남성 중심적 시선은 젠더 억압과 젠더 불균형을 강화하는 듯 보여지나, 사실은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의 남성 위압적 분위기를 그대로 서술하고 그에 반발하는 단테의 파격적이고 격렬한 거부 행동을 통해 그 당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수직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조이스는 자신의 소설에서 순종적인 여성상의 재생산 대신 주체적인 저항 여성들의 노출을 통해 가부장제가 생산하는 여성 억압의 불합리함을 제시하고 새로운 젠더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

도를 먹는 일이 없답니다”(“Madam, I never eat muscatel grapes.”, P 65)라고 음식을 거부하는 자신을 상상한다. 스티븐은 순종이 아닌 거부를 통한 자기주장을 터득해 나간다. 그는 순종의 미덕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그의 어머니와 같은 순종이 아닌 단테와 같은 저항을 택한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주인공 에드몽 단테스가 감옥을 탈출하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다시 나타나 복수하는 이야기이다. 『초상』에서 스티븐이 상상하는 장면은 에드몽 단테스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원수에게 시집을 간 옛 연인 메르세데스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그는 메르세데스가 원하는 머스컷 포도를 거절한다.)

## 결론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남자와의 공모를 거절하는 일은 여자들에겐 남성사회가 자기들에게 부여할지도 모르는 이익을 단념하는 일이 된다.”(24) 보부아르의 지적처럼 가부장제 공모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의 이익 전략이라는 명목 아래 지속 되어 왔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가부장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성들이 경제적 위험과 “실존의 고뇌”(보부아르 24)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맞바꾼 실수는 그들의 정체성을 남성 중심 사회가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경제 권력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생존권을 쥔 가부장에 의해 여성은 지배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독립이 제한된 문화권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남성 가부장에게 자신의 신체권을 포함한 전권을 이양해야 했다.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가부장적 논리는 여성을 교육과 사회활동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었다.

자립하지 못하는 여성은 가부장에게 생존을 걸게 되고 결국 노예 상태와 같은 심리적 구속을 당연시하게 된다. 이 상태가 바로 조이스가 말한 마비이다. 이 마비가 더 참혹한 이유는 남성들이 가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상황에서조차도, 인식이 마비된 여성들은 계속 가부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결혼을 욕망하거나 대체 가부장을 욕망한다는 것에 있다. 사회경제적 불안감은 반복적으로 여성들을 가부장 아래로 내몰고 종속된 삶을 살도록 만든다. 조이스는 특히 그의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 시스템의 불균형을 깨달은 작가였으며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여성들의 삶은 그대로 재현된다.

음식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음식의 풍요로운 공급을 통한 생존의 안정은 가부장제의 권력 유지의 상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음식은 가부장제에 대한 마비의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저항의 매개체가 된다. 여성들의 음식 갈구는 사회경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한 끝없는 가부장 갈구로 이어지고, 그와 반대로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가부장의 절대적 가치와 권위에 반기를 드는 전복적 저항 행동으로 기능한다. 본 논문은 조이스 작품 속 여성들의 음식 거부와 음식 갈

구의 행동 패턴 분류를 통해 그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 더블린 여성들에게 있어 음식이 갖는 상징성을 연구했다. 「이블린」의 이블린은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와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출신이 불분명한 연인 프랭크와 도피성 결혼을 할지 갈등한다. 하지만 이블린은 자신이 아팠을 때 망나니 아버지가 구워 준 토스트의 기억을 통해 비록 학대하는 가부장 일지라도 자신의 생존을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았다고 여기며 결국 프랭크의 손을 놓아버리고 더블린을 떠나지 못한다. 가부장의 허락하에 공급되는 음식은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부장제의 권력 수단이 된다. 곧 허기진 여성들에게 음식, 가부장, 생존은 같은 의미이다. 여성의 순종의 대가는 보호와 음식이며 여성들은 평생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불균형에 마비되어 간다. 가부장제는 남성과 여성이 상생하는 사회 제도가 아니라 생존과 복종을 건 거래임을 은폐한다. 「하숙집」의 무니 부인과 폴리도 난봉꾼 아버지 대신 준수한 청년 도란을 남편으로 들이기 위해 생존의 안락함을 상징하는 따뜻한 음식을 이용하여 도란을 유혹하는데 성공한다. 무니 부인, 폴리, 도란은 각자가 꿈꾸는 가부장적 가정에 대한 환상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덧과 같은 강제 결혼을 하게 된다. 「진흙」의 마리아도 사회경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자기 기만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환경을 미화시키며 결혼을 욕망하고 좋은 음식을 매개로 가부장을 대체할 조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한다. 「죽은 사람들」의 모르칸 자매는 가부장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허기를 최고급 음식의 과시로 채우기 위해 매해 성대한 크리스마스 만찬을 차린다. 모르칸 자매는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여자들끼리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멀리 사는 조카 가브리엘을 집안의 가부장으로 여기며 심리적으로 의지한다. 그녀들이 만찬의 실제 주인임에도 가브리엘을 만찬의 주인으로 세우며 그의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한다.

이 여성 인물들 모두 가부장제에 대한 환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집착하며 허구적 가부장에 마비되어 있다. 이들 모두 사회경제적 허기를 음식을 통해 채우려 하고 가부장이 나누어주고 공급해 주는 음식을 최고의 음식으로 여긴다. 이것은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적으로 가부장에게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 여성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세뇌에 그 원인이 있다. 가부장의 보조자로서 그의 뒤에 서서 그의 돈으로 허락을 받고 음식을 사는 것이 행복이고 생존의 해결 방법이라고 여긴다. 이블린, 무니 부인, 폴리, 마리아는 가부장제에 대한

환상으로 마비를 선택한다. 이것은 생존에 대한 절박함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비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가부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여성들의 실제적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마비에서 해방되기보다 더 깊은 마비를 택하고 가부장제의 허구가 드러났음에도 가부장을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가부장은 음식의 풍족함, 행복, 안전, 보호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모두 가부장제의 허구일 뿐이다.

반면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와 『초상』의 단테는 가부장제 안에서의 권력의 분배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음을 인지한 개혁적인 여성들이다. 조이스는 그의 작품에 젠더의 고정된 틀을 거부하는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를 등장시킴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에 의문을 던진다. 그녀들은 남성 가부장이 공급하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젠더 역할 수행을 거부한다. 이들의 젠더 역할 수행 거부는 남성 중심적 화자에 의해 자칫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화자의 편향된 렌즈를 걷어내고 보면 불균형한 권력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정당한 저항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여성은 이블린, 무니 모녀, 마리아, 모르칸 자매들에게서는 상상 불가능한 젠더 역할의 반란을 통해 인식의 깨달음을 전달한다. 여성들의 음식 갈구와 음식 거부를 사회경제적 허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부장제는 여성의 순종 강요보다 여성들이 자립할 기회를 빼앗은 것에서 그 폐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부장제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독립을 막고 주체적인 정체성 형성을 방해한 것은 여성들의 삶을 이블린과 무니 모녀, 마리아처럼 가부장의 보호가 최종 삶의 목표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마비된 육체와 정신으로는 그들이 그토록 채우고 싶어 하는 사회경제적 허기를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은 끝없는 갈구의 상태에 머물 것이다. 조이스는 작품을 통해 가부장제에 마비된 더블린 여성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허구적 가부장에 대한 깨우침이며, 그들 스스로도 세상에 맞설 수 있다는 인식의 깨어남을 통해 마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 인용문헌

- 김미령. 『더블린 사람들에서의 여성 억압과 저항』.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소연. 『조이스의 여성 인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박윤기. 『제임스 조이스의 긍정적 여성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수잔 보르도.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복 역. 또하나의 문화, 2003.
-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제 2의 성 I』. 이희영 역. 동서문화사, 2017.
- 유소희. 『제임스 조이스의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주련.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나타난 조이스의 여성관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이강훈 역. 파주: 열린책들, 2013.
- \_\_\_\_\_. 『젊은 예술가의 초상』. 이상옥 역. 민음사, 2001.
- 황보귀남. 『조이스의 더블린 여자들: 「더블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황희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제임스 조이스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Bowen, Zack, “Joyce's Prophylactic Paralysis: Exposure in *Dubliners*” *James Joyce Quarterly* 19.3(1982): 257-273. Print.
- Chapman, Mary and Green, Barbara. “Suffrage and Spectacle” *Gender in Modernism*. Bonnie Kime Scott.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7.
- Cheng, Vincent J. “Empire and Patriarchy in ‘The Dead’” *Joyce Studies Annual* 4(1993): 16-42. Print.
- Counihan, Carole and Penny Van Esterik. *Food And Culture*. Routledge, 2007.

- Cusack, George and Sarah Goss. *Hungry Words: Images of Famine in the Irish Canon*, Ed. Cusack, George and Sarah. Dublin: Irish Academic Press, 2006.
- Davis, Michael F. "Marian Purity, Sacred Parody, and the Soiling of Maria in 'Clay'" *Joyce Studies Annual*(2021): 252-90. Print.
- Eide, Marian. "James Joyce's Magdalenes" *College Literature* 38.4(2011): 57-75. Print.
- Ellmann, Maud. *The Hunger Artists: Starving, Writing, and Impriso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 Gabler, Hans Walter. "The Christmas Dinner Scene, Parnell's Death, and the Genesis of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James Joyce Quarterly* 13.1(1975): 27-38. Print.
- Garrison, Joseph M. Jr. "Dubliners: Portraits of the Artist as a Narrator" *Novel: A Forum on Fiction* 8.3(1975): 226-240. Print.
- Innes, C. L. *Woman and Nation in Irish Literature and Society, 1880-1935*.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3.
- Joyce, James. *Dubliners*. Ed. Maggot norris. Norton & Company, 2005.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2003.
- Kenner, Hugh. "Molly's Masterstroke." *James Joyce Quarterly*, 10.1(1972): 19-28. Print.
- Kho, Younghee. "*Let Go, Let Fly, Forget*": *The Famine, Food, and Regulation in James Joyce and Samuel Beckett*. Diss. University of Tulsa, 2013.
- Leonard, Garry M. *Reading Dubliners Again: A Lacanian Perspectiv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3.
- Mara, Miriam O'Kane.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Food" *New Hibernia Review* 13.4(2009): 94-110. Print.

- Mulhall, Daniel. "Parallel Parnell: Parnell Delivers Home Rule in 1904." *History Ireland* 18.3(2010): 30-33. Print.
- Mullin, Katherine. *James Joyce, sexuality and social pu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Mulvey, Laura.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Film Theory and Criticism: Introductory Readings*. Eds. Leo Braudy and Marshall Coh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Murfin, Ross C. "Feminist Criticism and 'The Dead'" *The Dead*. Ed. Daniel R. Schwarz. Boston: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ress, 1994.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3.
- O'Brien, Eugene. "Because She Was a Girl: Gender Identity and the Postcolonial in James Joyce's 'Eveline'" *Studies: An Irish Quarterly Review* 93.370(2004): 201-215. Print.
- Parrinder, Patrick. "Dubliners" *Modern critical views James Joyce*. Ed. Harold Bloom. New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 Roos, Bonnie. "James Joyce's 'The Dead' and Bret Harte's Gabriel Conroy: The Nature of the Feast." *The Yale Journal of Criticism*, 15. 1(2002): 99-126. Print.
- Schwarze, Tracey Teets. *Joyce and the Victorians*.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09.
- Sewell, Lisa. "'In the End, The One Who Has Nothing Wins': Louise Gluck and the Poetics of Anorexia," *Literature Interpretation Theory* 17.1(2006): 49-76. Print.
- Toolan, Michael. "Analysing Conversation in Fiction: The Christmas Dinner Scene in Joyce's: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oetics Today* 8.2(1987): 393-416. Print.
- Ulin, Julieann Veronica. "Fluid Borders and Naughty Girls: Music, Domesticity, and Nation in Joyce's Boarding Houses" *James*

- Joyce Quarterly* 44.2(2007): 263-289. Print.
- Walzl, Florence L. "The Liturgy of the Epiphany Season and the Epiphanies of Joyce" *PMLA* 80.4(1965): 436-450. Print.
- Walzl, Florence L. "Pattern of Paralysis in Joyc's Dubliners: A Study of the Original Framework" *College English* 22.4(1961): 221-228. Print.
- Witch, Wolfgang. "'Eveline' and/as 'A painful case': Paralysis, Desire, Signifiers" *European Joyce Studies* 7(1997): 115-142. Print.

## Abstract

**Collusion with and Resistance to Patriarchy:  
Dublin Women's Desire for and Denial of Food  
in James Joyce's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Rian Ko

In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James Joyce depicts the contrasting behaviors of Dublin women toward food, displaying their varied desires for food *and* refusal of foo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ir divergent conduc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determinant of such polarized behaviors toward food exemplifies the patriarchal Irish society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For this, this study uses Joyce's awareness of the suffering of Dublin women paralyzed by patriarchal structures. Moreover, this study attempts to divulge the male narrator's distorted narration toward the women who challenge the male authority. As Margot Norris claims, Joyce's male narrator often colludes with patriarchal structures, attempting to subordinate women.

In early 20th century Ireland, women were not only largely excluded from education but also were given limit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is reason, socioeconomic independence was nearly impossible for them when they faced crises; the absence of a patriarch resulted in women's socioeconomic crisis. In this condition, food plays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finding a new patriarch for Eveline, Maria, Mrs. Mooney, and Polly in *Dubliners*. Their desire for food can be understood as their desire for survival. To survive, they actively seek male

patriarchs, either through marriage or through alternative family relations. In contrast, socioeconomically independent women such as Miss Ivors in “The Dead” and Dante in *Portrait* undermine the authority of patriarchs through the women’s refusal of food. Judith Butler claims gender identity as a performative accomplishment compelled by social sanction and taboo. She describes gender identity as the stylized repetition of acts through time and suggests the possibilities of gender transformation being found in the breaking or subversive repetition of gender performance. Dublin women's refusal of food can be a symbolic rejection of expected gender performances. The traditional gender role by Dante and Miss Ivors can also represent a subversive act that disrupts what Butler calls the stylized repetition of acts(519). The departure from their conventional submissive roles as women is remarkably significant in the possibilities of gender identity transformation. Engaging in these acts, they not only show their acute awareness of patriarchal constraints but also express strong resistance to them.

**Key Words:** James Joyce, women, food, patriarchy, collusion, resistance, desire, marriage